이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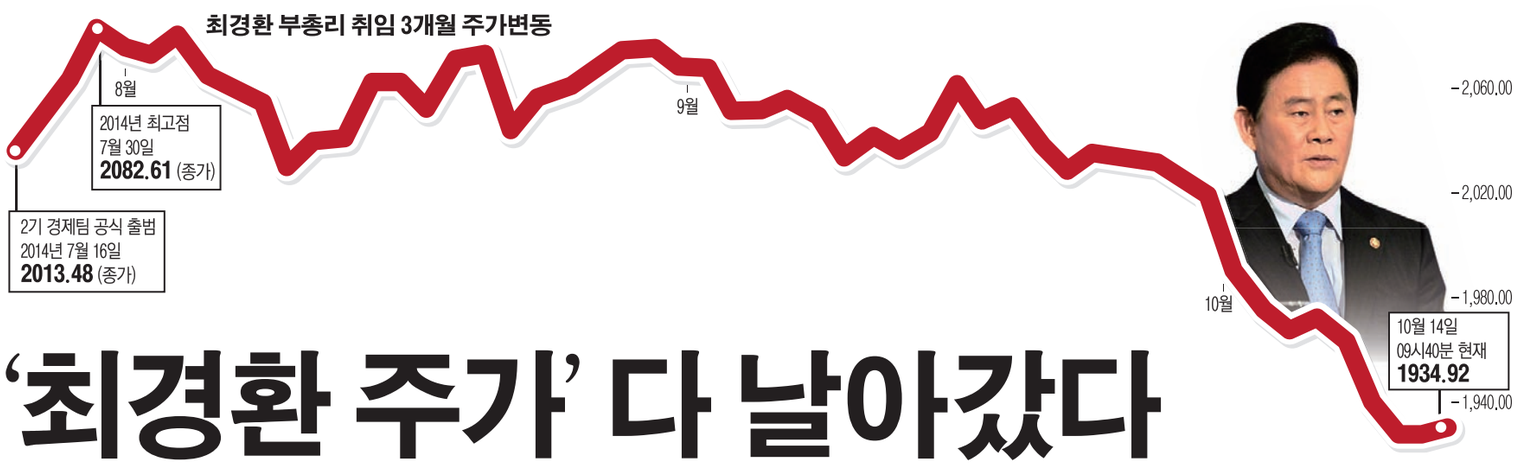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제1005호



'최경환 주가' 다 날아갔다

취임후 경기부양책 효과 2080 넘었다 이젠 1900선 위태
强달러·엔低 대외변수에 기업 실적악화 정책기대감 삼켜

'초이노믹스'의 온기를 느끼기도 전에 코스피에 한파가 밀려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경기 부양 기대감이 부각되며 지난 7월 2080선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가 1900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7월 2기 내각이 출범하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란 기대감이 증시에 훈풍을 몰고 왔지만 열기가 식은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했다. 기업배당 확대, 세제혜택 금융상품 도입, 퇴직연금 활성화, 증시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하나같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강달러와 엔저라는 대외변수가 정책 기대감을 삼켜버리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코스피는 1930선을 겨우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전포인트가 없으면 1900선도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3.77포인트(0.2%) 오른 1930.81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코스피지수는 1927.21에 마감하며 지난 3월 20일 기록했던 1919.52 이후 약 7개월 만에 1930선을 내주기도 했다. 최 부총리가 경기부양 패키지를 쏟아내며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7월 30일의 2082.61과 비교하면 150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코스피 하락 배경엔 달러 강세, 실적, 수급, 대외변수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3분기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도 높다. 반전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외변수 또한 우호적이지 않다. 유럽의 경기 우려와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 등 증시에 부담 요인들만 산적해 있다.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기 경제팀에서는 후속 부양 카드를 꺼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중 증시 활성화 방안이 나올 예정이지만 대외 악재의 파급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제어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엿보인다.

채현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10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한 경계심리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증시의 강한 반등세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취지는 우호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부양책이 시장을 견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장청 기자 jcha@

갤럭시폰 가격 '한국차별' 논란 진실은

국내 시판 단말기 고사양 제품 '급' 다른데 단순 가격비교 무리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스마트폰 가격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보다 높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가격 차별의 골자다. 하지만 해외 판매에 따른 세금(부가가치세) 및 사양 등을 고려한 가격 비교가 아니라 같은 모델에 초점을 맞춘 단순 가격 비교에 불과,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작성한 '국산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격'을 인용,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가격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해외보다 수십만원이나 비싼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례로 지난달 26일 국내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32GB)'의 국내 출고가는 95만7000원, 미국 내 출고가는 약 825달러(약 87만6788원)로 국내 출고가가 해외보다 8만원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모델의 스마트폰 가격을 단순 비교할 경우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를 이른바 '호갱님(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등의 실제 판매 조건을 감안해 보면, 한국과 미국의 갤럭시노트4 출고가는 각각 95만7000원, 95만4000원으로 가격 차이는 3000원에 불과하다.

또 올해 3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5'의 국내외 가격 비교 역시 사양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갤럭시S5의 국내 출고가는 86만6000원으로, 미국 내 출고가 약 649달러(약 68만9900원)보다 17만원 정도 비싸다.

▶2면에 계속

김지영 기자 gutjy@

한국-미국 스마트폰 가격 비교 ※자료 : 삼성전자

	구분	한국	미국
갤럭시 노트 4	출고가(VAT포함)	95만7000원	95만4000원
	출고가(VAT별도)	87만원	87만6000원
	2년 약정가(VAT별도)	79만600원	32만원
	사양	Cat6(광대역 LTE-A), 지상파DMB 有	Cat4(LTE),지상파 DMB 無
갤럭시 S5	출고가(VAT포함)	86만6800원	74만248원
	출고가(VAT별도)	78만8000원	68만5415원
	사양	32GB, 배터리2개, 배터리충전기 · DMB 有	16GB, 배터리 1개, 배터리 충전기 · DMB 無

41일만에 지팡이 짚고 등장한 北 김정은



'건강악화설' 김정은 건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1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사를 끝낸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신작 음악회 관람 이후 처음이다. 〈사진〉

특히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주택지구 현장을 방문한 것을 강조하며 건강 악화설을 일축했다.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건설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의 걸음에 큰 불편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해외 IB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 3.8%"

최고 4.1에서 최저 3.2%까지
"중국·유럽 경기둔화로 발목"
정부·한은 전망치보다 낮아

다수의 해외 투자은행(IB)과 경제전망기관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인 4.0%보다 낮은 3.8% 안팎으로 전망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27개 해외 경제예측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3.8%로 나타났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성장률 목표치인 4.0%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이와캐피털마켓(3.4%), ING그룹(3.5%), 스탠더드차타드(3.6%), 무디스(3.6%)가 3% 중반대를 제시했으며 HSBC(3.7%), 크레디트스위스(3.7%), 골드만삭스(3.8%), 도이치방크(3.8%),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3.9%) 등은 3% 후반대로 전망했다.

특히 캐나다 3위 은행인 노바스코샤은행과 독일 데카방크는 각각 3.2%를 제시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와 프랑스계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3.3%를 제시하며 내년 한국 경제를 어둡게 내다봤다.

반면 모건스탠리(4.1%), 스코틀랜드왕립은행(4.1%), 비즈니스모니터(4.1%) 등은 정부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예상치를 내놨다. 소시에테제네랄(4.0%), 시티그룹(4.0%), 노무라(4.0%), 바클레이즈(4.0%) 등은 정부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성장률 4.0%는 최경환 경제팀의 목표치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 '41조원+α'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정책 효과 가시화와 세계경제 회복을 전제로 한국 경제가 4.0% 성장 경로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으로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일부 해외 기관들이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유럽, 중국 등 한국을 둘러싼 대외 경제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문선영 기자 moon@

아이폰6도 단통법 '직격탄'?

이통사 보조금 15만원선… 고가요금제 써도 기기값 85만원

이달 31일부터 국내 출시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가 이달 31일로 확정됐다. 국가별 보조금 제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제 관심은 국내 출시 가격에 쏠리고 있다.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14일 새벽 1시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달 24일 애플의 4.7인치 스마트폰인 '아이폰6'와 5.5인치 제품 '아이폰6 플러스'의 예약판매를 시작으로 일주일 뒤인 31일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폰6(모델명 A1586), 아이폰6 플러스(A1524)는 전날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인증을 통과했다. 이들 제품은 우리나라와 함께 마케도니아, 멕시코,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등 23개 국가에 동시에 출격한다.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국내 판매가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아이폰6(16GB 기준)의 출고가는 아이폰5S보다 비싸진 90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폰6보다 사양이 높은 아이폰6 플러스의 경우 10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

이동통신업계는 아이폰6의 보조금 수준을 15만원(6만원대 이상 요금제 선택 시)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건을 가정하면 소비자들은 2년 약정 기준으로 아이폰6는 75만원, 아이폰6 플러스는 85만원 전후의 기기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통신료와 제품 가격이 포함된 월 통신비용은 최하위 16GB 모델도 매월 10만원 이상이 들 전망이다.

장효진 기자 js62@

데이터 뉴스 Data News

'생계형 신용대출' 비중 늘었다

최근 들어 생활비 마련 목적의 '생계형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신용대출 이용자 3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나이스알앤씨가 전국 만 20~64세 금융거래소비자 2만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가 생활비 때문에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5.4%보다 4.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3대 생보 설계사 1인당 고객 200명

대형 생보 3사의 보험설계사 1인당 보유 고객수가 19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조사한 결과(2012년 10~11월 기준)에 따르면 교보생명 설계사 1인당 보유 고객수는 평균 22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생명 192.5명, 한화생명 178.9명 순이었다.

200명 이상 고객을 보유한 설계사 비중은 교보생명이 44.4%였으며, 삼성생명 32.7%, 한화생명 30%로 집계됐다.

강구귀 기자 kkk@



Market 화요섹션 17~21면

커버스토리
'환율공습' 탈출구는?



박병원 회장 ▶4



윤갑한 사장 ▶13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하영구 '사임' 배수진… 자신감?

〈씨티은행장〉

점점 달아오르는 KB회장 레이스

현직행장 꼬리표 떼고 선거 올인

김기홍 팬 아시아리 사장도 사퇴

'터줏대감' 윤종규 본선진출 주목

16일 후보군 4명 압축 '시계 제로'

일부 인사 '정치권 연계' 루머까지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오른 하영구 씨티은행장과 김기홍 전 수석부행장이 자신의 직(職)에서 물러나면서 대권 레이스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KB금융 회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4파전에 대한 배수진을 친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 행장은 임기 1년 5개월을 남기고 미국 씨티그룹에 사임 의사를 전했다. 본사의 재가를 거쳐 늦어도 14일 직원 메시지를 통해 공식 사임을 표명할 예정이다.

현직 행장이란 '꼬리표'를 뗌으로써 KB금융 회장 경선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전 부행장도 팬 아시아리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재보험 설립 부담이 낮아진 만큼 KB금융 인선에 더 집중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16일 회장추천후보위원회(회추위)를 앞두고 두 명의 유력후보가 배수진을 치면서 KB금융 대권 레이스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KB금융 회장 후보에는 하 행장, 김 전 부행장과 더불어 양승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지동현 전 KB국민카드 부사장,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가나다순)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동걸 전 신한금융부회장이다.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캐피탈 사장,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금융업 전반에 넓은 경험을 쌓은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씨티은행에서 물러난 하 행장도 유력 후보군이다. 글로벌 은행에서 14년간 은행장으로 일해 금융 전문성이 풍부하고 정관계와 두터운 교분을 쌓아왔다는 평가다.

30년 전통 KB맨인 김옥찬 전 부행장이 사퇴하면서 내부 출신 가운데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는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꼽히고 있다. 윤 전 부사장은 후보 중 가장 오래 KB(7년)에 몸담았다. 온화하며 배려 있는 성품을 지녀 덕장에 가깝다.

팬 아시안리에서 물러난 김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도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내며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지휘했고, 2006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이 된 뒤 KB지주 설립기획단장을 맡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후보 간 지지세력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면서 4인방 압축 예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어떤 후보는 BH(청와대)랑 연계돼 있고, 어떤 후보는 사외이사와 절친한 사이라는 등 후문까지 나돌고 있어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하영구
씨티은행장


김기홍
전 KB은행 부행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노벨경제학상 프랑스 장 티롤 교수



"대기업 독과점 일괄규제는 毒" 산업별 맞춤형 정책구조 제안

"무조건적 가격통제·담합 억제 아닌

특허 협력 등 효율적 경쟁 끌어내야

M&A통한 기술혁신 촉진 순기능도"

산업조직론에 게임이론 업그레이드

기업 경쟁 '상생 가이드라인' 제시해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201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장 티롤 툴루즈 1대학 교수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장 티롤 교수는 '시장의 힘과 규제에 대한 분석' 공로로 상을 받게 됐다. 올해 프랑스는 티롤과 문학상의 파트릭 모디아노 등 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티롤은 프랑스인으로는 3번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다.

위원회는 "티롤 교수는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제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한 공로가 있다"며 "그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런 행태로 빚어지는 '시장의 실패' 연구에 새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티롤 이전에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은 모든 산업의 독과점 규제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었다. 가격 상한제나 경쟁사 간 담합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티롤은 이런 규제들이 모든 산업에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일부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증명했다. 예를 들어 가격 상한제는 독과점 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초과이익으로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티롤 교수는 지적했다. 또 가격담합은 대체로 해롭지만 특허권 등에서 협력은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기업 인수·합병(M&A)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순기능과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역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이에 티롤 교수는 개별 산업의 특정 상황에 맞춰 규제와 정책을 조심스럽게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통신과 은행 등 각각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구조를 제안했다. 이런 새로운 통찰로 막대한 시장권력을 지닌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동시에 이들이 경쟁자와 고객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길을 제시했다고 노벨위원회는 강조했다.

미국 조지메이슨대의 타일러 코웬 교수는 "툴루즈대의 티롤 교수는 1980년대 핵심 논문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산업조직 연구의 선구자 역할을 해 왔다"며 "올리버 윌리엄슨(200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초기 연구를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정교하고 수학적인 형태의 게임이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티롤 교수는 1953년 프랑스 중동부 트루아시에서 태어났으며 1981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게임이론의 대가로 200여 편의 논문과 '산업조직론' '조달·규제 내 인센티브 이론' '통신에서의 경쟁' 등 10여 권의 저서를 발간했다.

그는 이날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노동시장이 파멸적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는 것을 두려워해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원을 너무 보호하려다 오히려 노동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을 언급하며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가 프랑스의 사회복지 모델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벨경제학상은 올해로 46번째를 맞이했다. 노벨상 수상자는 800만 크로네(약 12억원)의 상금을 받는다. 노벨상은 경제학 분야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로 유명한 게임이론의 대가 존 내시와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 폴 크루그먼, 밀턴 프리드먼 등 전설적인 경제학자들이 모두 이 상을 받았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이날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은 6개 부문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해외 제품 부가세 따지면 직구가 손해"

갤럭시폰 가격 '한국 차별' 논란

▶1면서 계속

하지만 사양 및 부속품 구성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출고가 86만6000원으로 국내 출시된 갤럭시S5의 메모리 용량은 미국 출시 제품의 두 배인 32GB다. 또한 추가 배터리와 충전기, 지상파DMB 기능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미국 버전의 갤럭시S5는 국내 제품에 포함된 배터리와 충전기, 지상파 DMB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의 사양과 부속품 구성,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갤럭시S5의 미국 내 출고가는 74만248원으로 높아진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메모리 용량에 따라 10만원 안팎의 가격차가 난다"며 "특히 해외 판매 제품의 경우 부가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국감 자료는 이 같은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가격은 국내와 동일 수준이거나 최신 모델은 오히려 더 비싸다. 아마존닷컴에서 '갤럭시노트4는 미국 내 출고가격보다 더 비싼 844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현지는 물론, 국내 판매가격과 비교하더라도 가격적인 이점이 없다. 여기에 10%의 부가세가 추가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해외직구는 잘못된 선택이다. 여기에 소비자는 제한적 사후서비스(AS)까지 감수해야 한다.

해외직구 업체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가 크지 않아 수요가 많지 않은 편"이라며 "스마트폰 해외직구는 저렴한 가격보다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미리 제품을 써 보려는 얼리어답터 수요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감청영장 거부” 이석우의 ‘엉뚱한 뚝심’…사용자 이탈 막을까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하고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카카오톡과 공권력의 사이버사찰에 항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13일 서울 한남동 다음카카오 한남 오피스 앞에서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연합뉴스

초강수 던진 다음카카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는 초법적 강수를 둠으로써 위기경영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영장 불응’을 선언, 사법당국과의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이 자칫 법치주의에 반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는 물론 관련 업계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법원의 정당한 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형법상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법원의 영장을 기업이 임의로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영장 집행에 단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에 대한 논란이 따르겠지만,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이 대표가 최근의 ‘카카오톡 위기’를 두고 다소 섣부른 감정적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수사기관과 사전 조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이나 유관기관과 협의는 없었다”고 밝히고 “법률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의 영장집행 거부는 여러 해외 IT 업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언론과 기업의 자유가 보장됐다는 미국에서조차 정당한 법원의 영장을 고의로 거부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미 법무부의 경우 구글, 페이스북, 야후, 링크드인 등 주요 5개 IT 기업들과 ‘투명성 보고서’ 발간을 협의할 만큼 그 입김도 세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기관이 기업에 이용자 정보나 감청자료 등을 요구한 건수 등을 담은 통계 자료로, 기업은 정부가 요구한 정보의 종류 등은 밝힐 수 없다.

다음카카오의 유례없는 강경 대응에 카카오톡 이탈자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 검열논란 사건일지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대응 주문
18일	대책회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 마련
25일	검찰, 인터넷 포털 게시판과 커뮤니티 글 모니터링 위해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팀’ 발족
10월 1일	정진우 노동당 대표 “종로경찰서가 자신의 한달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지인 3000명 정보 압수수색” 폭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청구 건수, 박근혜 정부 이후 늘어났다는 통계 공개
8일	다음카카오, 검열 요청 없었다는 기존 입장 번복하는 사과문 게재. 감청 영장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147건 발부 받았다고 공개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앞으로 감청 영장에 불응할 것” 기자간담회 개최

위기경영 시험대에 오른 李대표

“법률보다 이용자 보호위해 결정”

법치주의에 반해 역풍 맞을수도

“섣부른 감정적 대응 아니냐” 분석

16일 국회 법사위 국감증인 출석

이 대표는 카카오톡 이탈자와 이용자에 대해 추후 자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랭키닷컴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수는 사이버 논란이 촉발된 9월 16일 2685만명에서 28일 2524만명으로 160만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문제 외에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서버 등에 저장하는 것에 대한 이용약관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카카오톡 서버에 일정 기간 보관된다는 것은 이용자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용자들은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카오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화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김태헌 기자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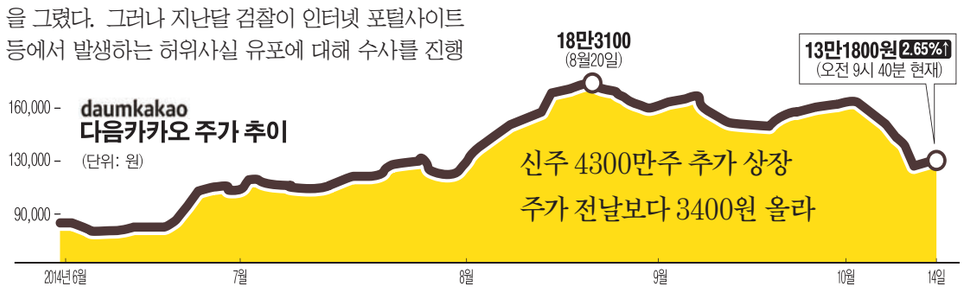
합병상장 첫날 주가는 일단 상승 출발

최근 개인정보 사찰 논란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다음카카오가 합병 법인 상장 첫 날 기분좋게 반등에 성공했다.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법인인 다음카카오는 이날 발행신주 4300만434주를 추가 상장하고 거래를 개시했다. 거래 첫 날 다음카카오의 주가는 오전 9시 40분 현재 전일보다 3400원(2.65%) 상승한 13만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합병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전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감청을 거부할 것”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도 주가 반등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다음카카오는 합병 상장이 결정된 이후 합병 시너지 효과와 신사업의 경쟁력이 부각되며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지난달 검찰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유관기관 회의에 다음카카오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밝혀지자 주가는 하락세로 반전됐다. 지난 1일 16만6500원에서 13일 종가 기준 12만8400원으로 22.88%나 폭락했다. 이같은 논란과 별개로 합병 상장 이후 물량 출회 가능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장권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상장 이후 많은 거래량과 주가 등락이 예상된다”며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물량은 대주주 및 주요 주주 물량을 제외한 기존에 카카오를 보유하던 기타주주 보유 물량이라 판단하며 이에 스톡옵션을 포함시키면 모든 발행 주식의 16.1%에 해당하는 980만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카카오는 중장기적으로 주가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유진 기자 eugene@





황교안 “나도 카톡 써…실시간 감청 불가능”

법무부 국감서 사과·해명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논란에 대해 “저도 카톡을 쓰고 있다”면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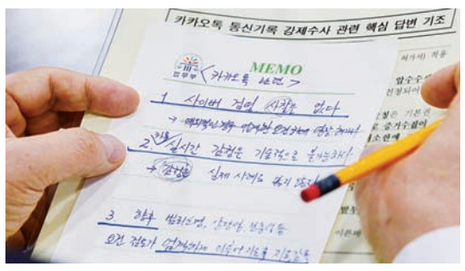
황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와 관련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실시간 감찰,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황 장관은 “(메신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한다”면서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실시간 삭제’ 표현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포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삭제할 수 있는 건 삭제하도록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황 장관은 상시 점검 방안으로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검찰이 권한을 내세워 직접 삭제를 요청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그럴 권한은 없다. 포털 관계자들을 부른 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황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독 발언 이후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 및 감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취임 후 사이버 명예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여러 차례 (수사를) 지시했다”며 “대검도 작년 8월 관련 사항을 지시했고 이런 가운데 대통령 강조 말씀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보도자료 수정을 요구하는 등 거센 비판을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검찰의 표현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등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32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메모지를 들고 있다. 뉴시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공급과잉 늪' 한국경제에 제언

"고급화로 수요 이끌어내야"

'IMF·WB총회' 워싱턴 간담회

제로 금리여도 수요없으면 투자도 없어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수출 확대를

비은행 금융부문 규제 묶여 성장 정체

"수요가 늘어날 조짐이 안 보이는데 어느 업종이 섣불리 투자하겠는가. 고급화를 통한 수요 창출만이 살길이다."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서비스전국은행연합회장)이 공급과잉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던진 제언이다.

박 회장은 1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벽은 '수요 부족'이다. 이를 뒤집어 얘기하면 '공급과잉'이 심각하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반도체·철강·조선·자동차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김밥가게에서부터 변호사·의사 등 전문 서비스직까지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없고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선 금리가 제로라 할지라도 투자가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곧 '미래의 수요'라는 의미다. 특히 10여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선 질적 성장, 즉 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적극적으로 수요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매일 세끼 먹던 밥을 더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양으로 수요를 늘리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결국엔 질을 높여 5000원짜리 밥을 사 먹던 이들이 만원짜리로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수출이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 만큼 관광과 의료 등 서비스업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중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을 때도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쇼핑하러 한국에 몰려드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국의 명품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만큼 지금 이대로 가면 반드시 머지않아 끊어질 수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 규제 완화와 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확충 등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손톱 밑 가시만 뽑았지, 진짜 가시인 목구멍 가시는 하나도 못 뽑았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또 비은행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규제'를 꼽으면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금융그룹을 만들어 놓고도 변함없이 은행 중심으로 가는 것은 참 잘못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재벌들이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어서 계열사 중에서도 비은행계열은 찬밥이고, 금융그룹에서도 비은행이 대접을 못 받고 있어 한국의 은행산업은 포화상태가 됐다"며 "비은행산업이 성장 발전 여지를 좀 더 갖고 있는데도 은행쪽보다 더 나빠 금융산업 전체가 되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고속도로 통행료 4.9% 오른다

정부, 내달부터 인상 방침

정부가 올해 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할 방침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기, 가스, 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요인이 큰 것으로 보고 올해 11월 이후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그동안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늘어난 반면 통행료 수입 증가는 미미해 매년 적자가 쌓인다면서 통행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연간 4조1600억원이 필요하지만 총수입은 3조4300억원에 불과해 최소한 4.9%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며 원가 보상률도 다른 공기업보다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행료 원가 보상률은 2011년 84.0%에서 2년 만에 2.1%포인트 내려갔다.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결산 기준 94.3%이며 부채규모는 26조원으로 늘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상태와 서민경제를 고려해 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지난달 인상폭을 결정했다.

다만 수도권 등의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키로 했다.

한편 4.9% 인상안은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7% 인상률에는 못 미친다.

김 사장은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 비용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 매년 23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최소 7%의 통행료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감전사 유발 '전력향상 신기술' 산업부는 실적 부풀리기 급급

공사현장 실사 없이 서류상 평가

최근 10년 공사 사고중 60% 차지

전력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97년 도입된 신기술이 현장실사 없이 지정돼 전기배전원들의 감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고시한 전력신기술은 총 97건이다. 이 중 지난 5년간 전력신기술 활용실적은 한국전력이 발주한 공사가 39만 6748건으로 99.9%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한국전력이 배전공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전력신기술은 10호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 배전공법'이다. 한전은 지난 10년간 이 공법을 적용해 2369억5400만원의 공사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송배전선로 감전사고 사상자 599명 중 60% 이상이 전력신기술 10호로 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전력신기술 지정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장실사가 심사항목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타 기관의 신기술 제도와 달리 현장조사도 없이 서류상 주관적 정성평가로 신기술을 지정해 온 셈이다. 또한 신기술 활용처의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심사 때도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있다. 전력신기술 10호 역시 2006년 보호기간 연장심사를 거쳐 2011년까지 연장됐다. 2001년 신기술 지정 이후 공사현장에서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만 3000건이 넘었으나 연장심사에서 현장적용성 평가항목이 빠지고, 대신 활용실적 항목이 심사요건으로 추가돼 무난히 연장됐다. 사실 보호기간 연장심사 통과를 위한 전력신기술 활용실적 부풀리기는 관행화돼 있었다.

특히 전 의원실이 산업부 전력산업과로부터 받은 5년간 전력신기술 활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백억원의 활용실적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신기술 10호의 경우 한전이 제출한 3년간 공사실적은 1199억원인 데 반해, 산업부가 제출한 공사실적은 1739억원이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전력신기술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문가들로 심사위원 풀을 구성해야 하며, 심사 기준에 반드시 현장실사를 포함시키고 과학적 정량평가에 의해 신기술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판매

식약처 '포스트…' 판매 금지

동서식품이 출고 전 대장균이 발견된 시리얼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동서식품은 완제품 시점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면 출고되지 않는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제조한 시리얼 제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시켰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진천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즉 출고하기 전 최종 품질검사에서 제품에 대장균이나 곰팡이 등이 발견되면 제품을 다시 생산 라인으로 돌려보내 살균을 거친 후 문제가 없으면 다시 완제품으로 시중에 유통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 일부 오염된 제품은 새로 가공을 거친 제품과 섞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량품을 새로 만들어지는 시리얼에 10%씩 섞으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서식품도 출고 전 대장균군이 발견된 제품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중부지역 첫 한파주의보… 쌀쌀한 출근길



아침 서울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가고 중부 일부지역에 올 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옷깃을 여미며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jak@

"세수부진·체납관리 미흡" 관세청 뭇매

기재위 국감… 세수진도율 사상 최저·면세점 상생 저하 질타

관세청이 세수 실적 부진과 고질적 체납관리 미흡으로 정치권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인 세수 진도율 △체납관리 실적 하락 △면세점의 대·중소기업 상생 저하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이 올해 7월까지 세수진도율이 48.9%, 금액으로는 33조3238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지난 5년 동안 7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은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다. 올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셈이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수목표를 설정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또한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체납관세 현금비중, 가산금 수납액,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등 3가지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점, 최근 3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하며 "관세청의 고질적 부실 체납관리 때문에 재정손실 야기,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 저해, 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보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8월 26일 김낙회 관세청장이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중소·중견 면세점 육성 정책 철회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기재위 외에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이어갔다. 특히 안행위의 서울시 국감에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권의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집중 추궁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쌍용차 해고자 복귀 또 연기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기각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의 일터 복귀가 또다시 연기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15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자들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의 존재와 구체적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년 동안 본안 항소심 재판에서 세밀하게 판단한 내용을 불과 5개월 만에 간단한 심리로 배척해 버린 기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쌍용차 정리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저축銀 비리' 전 금융위 간부, 대형로펌서 억대 연봉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던 금융위원회 간부가 유죄 판결 확정 직후 대형 로펌에 영입돼 거액 연봉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 은행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 1월 김앤장법률사무소에 금융전문위원으로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2011년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임 전 회장이 구속되자 받은 돈을 집 근처 야산에 묻은 뒤 돈을 돌려줬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으나, 2심은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지난해 5월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좌영길 기자 jyg97@

로열티 올리고 세금 덜 낸 홈플러스

지난해 英 본사 지급액 갑자기 인상… 세금 170억 줄어

대형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영국 본사의 로열티 지급으로 170억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홈플러스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홈플러스가 영국 테스코(TESCO)에 로열티로 2013년 758억 7200만원을 지급해 홈플러스가 한국 국세청에 내야 할 지난해 세금 중 170억원을 덜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홈플러스는 2012년 매출액의 0.05%인 30억원을 로열티로 영국 테스코 본사에 지급했고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동일한 비율을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 본사에 로열티로 616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홈플러스 매출액의 0.86%이며 2013년도 영업이익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로열티는 비용에 해당해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총매출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영업이익의 24.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로열티는 총지출에 포함되니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고 이에 따라 170억원의 세금이 증발한 것이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홈플러스에서 10만원어치를 쇼핑하면, 그중 860원은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영국 본사에 로열티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 의원실은 홈플러스가 테스코라는 브랜드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로열티를 20배 인상한 이유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잇단 사업 철수를 추진하는 등 영국 테스코 본사의 경영 악화 탓에 한국에서 로열티 명목으로 자금을 빼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브랜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매장 진열 방법 등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골목상권 다 죽이고,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꼴찌에다 점오계약제로 노동자들 착취하고, 경품행사로 소비자 개인정보 팔아먹고, 영국 본사의 경영악화에 수십 배의 로열티를 지급하며 국부유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세금으로 메우는 연금 적자…'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불가피

공무원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

㉮ 연금논란 '핵심 쟁점'은

㉯ '시한폭탄' 공무원 연금 적자

㉰ 연금개혁의 지향점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17일 첫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당정은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협의에 따라 어느 정도 선에서 개혁안이 마련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국가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로 미뤄볼 때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정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295만원, 국민연금 168만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 공무원 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령자 중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퇴직공무원은 전체의 50.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수령액은 295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기준으로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의 수령액은 168만원이다.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낸 내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는 올해 433만명에서 내년 468만6000명으로 35만6000여명이 더 늘어난다.

수급자 증가에 따라 생기는 급여지출액은 내년에는 지난해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한 34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애초에 공무원 연금이 적자가 된 것은 IMF 직후 정부가 예산으로 써야 했던 퇴직급여 등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7조4890원을 끌어다 쓴 것이 계기가 됐다는 주장 때문이다.

또 개인부담률이 4.5%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7%의 공무원 연금과 단순 비교할 수 없고, 33년 이상 재직한 경우의 액수를 시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국민연금의 같은 기간 수급액과 비교하는 것은 공정한 게 아니라는 반론이다.

◇공무원 연금, 얼마나 더 내고 덜 받게 되나 =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3년 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금액은 219만원, 국민연금은 84만원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2.6배를 더 받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이 2.6배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공무원의 직급과 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민간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단노조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총 31만9510명 중 연금액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6만7542명(21.14%)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매달 6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 중 정무직 출신 3명 중 2명(62.2%)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 같은 액수를 받는 일반직 공무원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지'가 상세히 공개되고, 그에 기초해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 공무원 50.5% 33년 이상 근무
평균연금 수령액이 295만원 되는데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168만원

국세로 메워야 할 적자 5년간 18조
재정건전성 악화…국민적 거부감도
공무원 연금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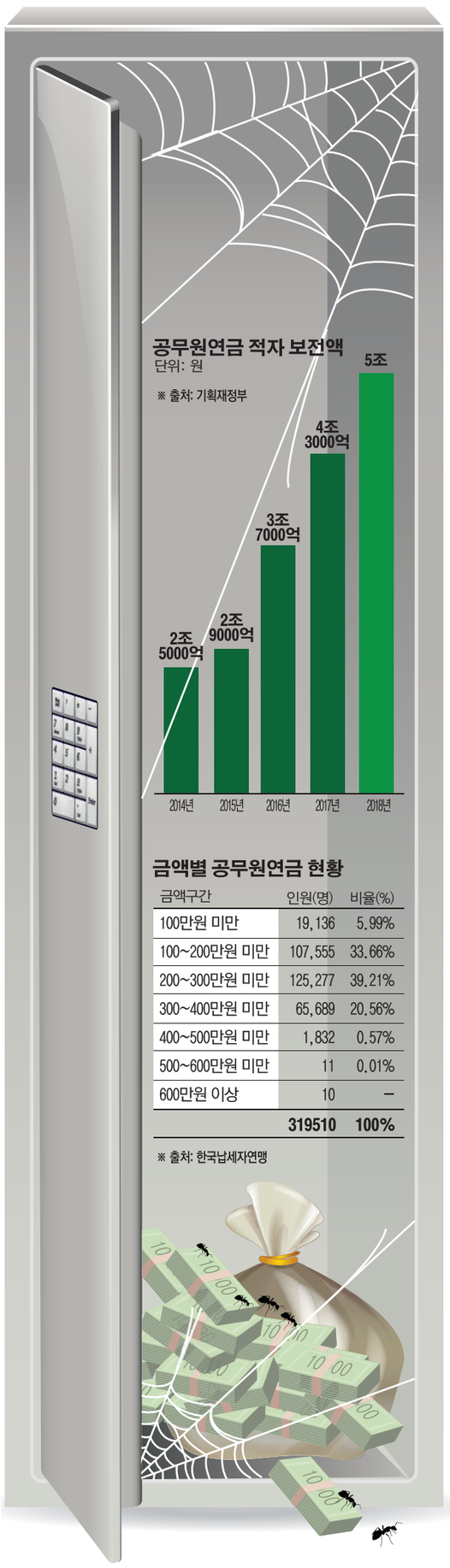
이어 김 회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보가 있는데도 '정보가 없다'며 거짓 답변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며 "연맹의 정보공개 요청에는 거절하고 공단 노조에만 공개한 점 자체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2018년까지 5년간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 18조4000억원 =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국세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18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지급 문제로 정부 재정이 크게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국민과 공무원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서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보와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며 "임금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친 생애소득을 비슷하게 맞춰 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역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

1995년 김영삼	2000년 김대중	2009년 이명박
연금기여율 단계적으로 7.5%까지 상승	연금기여율 8.5%로 인상. 기준 보수를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월액으로 변경.	소득대체율 62.7%로 인하. 그러나 연금 지급 기준을 본봉에서 본봉+수당으로 변경.

역대정권 연금개혁 실패…왜

공무원 '눈치보기'에 번번이 좌절

공무원연금 개혁이 처음 시도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1993년 공무원연금이 398억원의 첫 적자를 기록하자 정부와 여당은 개혁에 나섰지만 공무원의 저항에 부딪혔다. 1995년 발표한 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 개인의 부담인 연금기여율을 기존 5.5%에서 1999년까지 점진적으로 7% 선으로 올리는 것에 그쳤다. 여기에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도입해 60세가 돼야 비로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개선했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다시 한번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금기여율을 8.5%로 인상하고 기준 보수 책정 방식을 변경했다.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보수를 최종 보수 월액에서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월액으로 개선해 연금액을 조금 낮춘 것이다. 수급자의 연금액을 재직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에 따라 조정하던 방식도 국민연금처럼 물가 상승률에 따르는 것으로 바꿨다. 물가 상승률과 보수 인상률 간의 차이가 심하면 이를 5년 주기로 재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현실화되면서 연금 수급권자들의 반발이 발생하자 2003년 의원입법을 통해 3년 주기로 변경됐다.

이해당사자가 개혁 주도한 것도 한 요인
밀어붙이기 졸속추진 땐 사회분열 우려

노무현 정부는 2004년부터 연금개혁을 검토했으나 끝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 연금 지급액을 월급의 76%에서 56%로 내리려고 했으나 중간 수준인 62%에 머무르고 말았다.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연급 지급 기준을 보수월액과 수당을 합친 액수로 정했다. 2009년까지는 보수월액만이 기준이었다.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액을 줄이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연금 지급 기준액을 높여 손해를 보전해 준 셈이다.

역대 정권이 끊임없이 시도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눈치보기' 탓이다.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표심을 선거 때마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을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이 주도했다는 점도 실패 요인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공정한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정부나 관료가 아닌 일반 납세자, 국민연금 가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료로 불입하고 퇴직금이 연금에 포함되는 등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결국 개혁으로 찾아올 불확실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발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대안 대신 무조건적인 개혁만을 앞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무원의 양보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란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에만 초점을 맞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개혁은 이번에도 결국 실패로 끝나거나 사회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혜은 기자 euna@



기술보다 신용 우선… 제기능 잃은 기보

〈기술보증기금〉

보증 52% 신용등급 A·B… 민간서 자금조달 가능
3년 미만 기업지원 21.8%… 1년 미만은 4.4% 그쳐
"자금력 부족해도 발전 가능성 큰 벤처지원 늘려야"

기술보증기금이 향후 발전 가능성보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에 보증을 더 많이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기업들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창조경제 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기보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기보의 국정감사에서는 우량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 쏠림, 일자리창출 부족기업에 대한 보증 실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기보는 2010년 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보증한 총 5만5898개 기업 중 52%(2만8937개 기업)가 민간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한 'A', 'B'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B등급 이상 연도별 비중도 2010년 62%, 2011년 51%, 2012년 46%, 013년 52% 등으로 2012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걸쳐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재무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은 기보가 아니더라도 민간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며 "기보는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주다 보니 자연스레 업력이 짧은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 투자는 21.8%로 나타났다. 특히 1년 미만 신생기업은 단 4.4%(3개)밖에 되지 않았다.

일자리가 창출 효과 없는 기업에 총 4조원이 넘는 보증지원을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기보는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이 도입된 2011년 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만2597개 기업에 총 13조515억원을 지원했다. 이중 30%가 넘는 6837개 기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없어 선정이 취소됐다. 이들에게 지원된 보증액은 4조1854억원에 달한다.

일 자 리 창 출 기 업 으 로 선 정 되 면 0.2~0.4%포인트의 보증료 감면 혜택과 우대보증으로 지정돼 보증심사가 완화된다.

김태환 의원은 "기보의 평가표로 이뤄지는 기업 선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만큼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고용창출을 이뤄낸 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KB, 경영안정 후 LIG 인수"

금융당국, 승인 보류키로

KB금융지주가 경영리스크로 LIG손해보험 인수작업이 늦어질 전망이다. 당초 KB금융지주의 LIG손보 인수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분사태로 최고 경영자(CEO) 모두 사퇴하는 등 경영공백 상황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인수 승인 보류 입장을 결정한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KB금융의 경영상태와 지배구조가 불안한 생태를 지속하고 있어 LIG손보 인수를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KB금융은 지난 6월에 LIG손보와 6850억원(지분 19.47%)에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8월 금융위원회에 자회사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달 중 금융위가 KB의 LIG손보 인수 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간의 내분고 퇴진으로 경영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진행중인 차기 회장 선임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야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편입승인은 인수 및 피인수 기업의 경영건전성, 경영상태, 인수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LIG손보 인수의 경우 KB의 경영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사태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난맥상이 드러났고 경영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KB의 경영안정이 가시화된 이후에야 승인 건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과 29일 잇따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이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IG손보 인수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KB금융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KB는 인수계약시 오는 27일까지 금융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연 6%의 지연이자를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 등에 물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B는 28일부터 하루 1억1000만원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KB금융 측 관계자는 "인수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되면 LIG손보의 이름을 바꾸고 KB금융 계열사들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시너지 효과를 본격화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현대라이프 대표 이주혁씨 내정



현대라이프는 지난 13일 대표이사에 이주혁〈사진〉 현대카드 부사장을 내정하고, 10월28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이 내정자는 청주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현대종합상사에서 출발해 2001년부터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금융사업본부 부사장 등을 지냈다.

이주혁 대표이사 내정자는 2008년 현대캐피탈 재임 시 S&P, Moody's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외 자본조달 채널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장기채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현대캐피탈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2012년부터는 현대카드의 금융사업을 총괄하는 금융사업본부장을 맡아 현대카드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주혁 대표이사 내정자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신제윤 금융위원장 "가스점검 확실하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민간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뷔페주방에서 가스누출 검사를 해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과거 주로 사후구제 수단으로만 바라봤던 보험의 기능 및 역할이 사전예방 기능 쪽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수입차 보험금 작년 1조673억 지급

평균 수리비 276만원 국산차 3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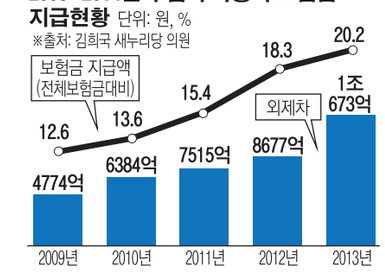
수입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이 연간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73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4774억원보다 2.2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000억원을 넘었다.

지난해 수입차 등록대수는 90만대로 등록 자동차의 4.7%에 불과하지만 수입차에 지급된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의 20.2%에 달했다. 평균 수리비도 수입차는 276만원으로 국산차의 2.9배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입차 평균 렌트비는 130만원으로 국산차의 3.3배나 됐다. 더욱이 지난해 외제차 중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나온 경우도 2009년 대비 3.2배나 급증한 3만5000여건을 기록했다.

김희국 의원은 "수입차의 경우 실제 등록대수는 적더라도 국산차 대비 고가의 수리비와 렌트비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다"며 "특히 수리비의 내용이 되는 부품별 가격이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가 4.7배(국산 43만1000원/수입 200만7000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은행권 석달동안 기술금융 '2조'

기업은행 6920억 최대
우리·대구은행 뒤따라

은행들의 기술금융 대출이 석달만에 3000건을 넘어섰다. 대출잔액으로 따지면 2조원에 육박한다. 기업, 우리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술금융 추진현황'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에 기반한 대출은 총 3187건, 1조8334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술금융은 시행 첫 달인 7월에는 486건(1922억원)에 머물렀지만 8월(1024건, 5299억원)과 9월(1677건, 1조1113억원)에는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당초 전망치인 7500건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은행 가운데에는 기업은행이 석달간 1337건(6920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기술금융을 선도했다. 전체 실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425건(28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은행에서는 대구은행이 48건(150억원)으로 단연 돋보였다. 은행 자율대출 영역에서는 하나은행 실적(157건, 1732억원)이 두드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건수로는 기보 보증부 대출이 전체의 60% 수준이나 대출잔액으로는 은행 자율대출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은행의 자발적인 기술금융 동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부터 종합상황판을 구축해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실적을 공개할 방침이다.

기술금융 비중과 기술 사업화 지원, 신용지원 비중, 전문인력 등 4개 항목으로 매겨진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지표도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임계치까지는 경험, 노하우와 같은 자료 축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 동안 실적 공개 등을 통해 집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강일트리피움"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강동구 건축과 제 2014-건축과-분양신고-7호 (2014. 10. 13)로 분양 신고 수리
■ 본 건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14-건축과-신축허가-140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677-3 (강일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C3-8)
■ 대지면적 : 353㎡
■ 건축연면적 : 2,504.625㎡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2층(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 지상1층(근린생활시설), 지상2~10층(오피스텔), 옥탑층(계단실)
■ 공급규모 : 오피스텔(지상2층~지상10층, 72호실, 연면적 : 2,504.625㎡)
■ 주차대수 : 총40대 (기계식 38대, 장애인주차 2대)
■ 공급대상 및 공급면적

(단위 : ㎡)

구 분	타 입	공급세대수	실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층별공용	전체공용	소 계	주차장	분양면적	
오피스텔	A	54	15.910	4.462	5.332	25.704	6.100	31.804	4.480
	AA	9	16.340	4.581	5.482	26.403	6.260	32.663	4.600
	B	9	20.550	5.762	6.892	33.204	7.875	41.079	5.79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세대수	구 분	분양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0%)	1회(10%)	2회(20%)	3회(20%)	4회(20%)	(20%)
							계약시	14~12~20	15~02~20	15~05~20	15~08~20	입주지정일
A	54	최고가	46,470,437	82,299,602	6,229,961	115,000,000	11,500,000	11,5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최저가	39,196,803	52,548,360	5,254,837	97,000,000	9,700,000	9,700,000	19,400,000	19,400,000	19,400,000	19,400,000
AA	9	최고가	40,813,167	54,715,382	5,471,531	101,000,000	10,100,000	10,1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20,200,000
		최저가	39,196,803	52,548,360	5,254,837	97,000,000	9,700,000	9,700,000	19,400,000	19,400,000	19,400,000	19,400,000
B	9	최고가	56,168,616	75,301,258	7,530,126	139,000,000	13,900,000	13,900,000	27,800,000	27,800,000	27,800,000	27,800,000
		최저가	54,552,252	73,134,315	7,313,433	135,000,000	13,500,000	13,5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 공통사항
1. 상기 공급금액에는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2.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타입별, 호수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3. 오피스텔 : 상기 실당 공용면적에는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 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에 대한 금액은 각 실별 분양금액에 면적별로 안분하여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분양대상 72실은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청약 신청 시 오피스텔 견본주택(분양홍보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6.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7. 전체(오피스텔, 상가(근린생활시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부분, ELEV홀, 계단실 등)은 오피스텔 및 상가(근린생활시설)의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분배되었습니다.
8.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산정되었습니다.
9.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한다.
10. 본 사업부지의 인근 고속도로 상의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본 사업부지는 SH공사가 시행한 택지조성지구내에 속하므로 건물 사용승인에 따라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더라도 택지조성공사 미완료에 따른 지적정리 미완료로 대지권 등기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자격
1. 분양모집공고일(2014년 10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2.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3.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하며 1인당 타입별로 5실까지 가능합니다.
4. 청약신청은 '타입'별에 따라 접수하고, 층·호수는 견본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공급일정 및 청약신청
1. 공급일정

구 분	청약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청약장소	당첨자선정 및 층·호수 결정방법	당첨자 공고
오피스텔	14. 10. 15 (수) 09:00 ~ 11:00	14. 10. 15 (수) 11:00 ~ 12:00	14. 10. 15 (수) 12:00 ~ 14:00	당사 견본주택 현장 청약	추첨에 의해 층·호수 Type을 무작위로 결정	당사견본주택 게시

2. 청약신청금 및 납부계좌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총분양금액의 10%	청약신청 계좌에 무통장입금	신한은행	140-010-692290	한국자산신탁(주)

※ 청약신청금의 현장 수납은 불가하며, 청약금은 지정된 청약신청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계좌 외의 납부는 청약 효력이 없음.
※ 청약신청자와 청약신청금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
※ 청약신청시, 청약신청금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됨.

3. 추첨방법 및 추첨장소 : 청약신청자에 한해 타입별로 공개추첨, 당사 견본주택

4. 청약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내 비치) · 본인 도장(또는 서명),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 본인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대리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청약신청금 납입 영수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법 인	· 청약신청서(당사 견본주택내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약신청금 납입 영수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1부(청약신청인 명의)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구비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오피스텔 또는 상가 신청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의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위임양식은 당사 견본주택내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지참(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청약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 기간 : 청약당첨자 발표일(2014. 10. 15)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환불
● 낙찰자 환불 : 청약신청 시 제출한 신청자 명의의 환불용 계좌로 계좌 입금됨
(낙찰자에 대한 청약금 환불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문의는 응답하되,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세대 발생시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① 계약일시 : 2014. 10. 15.(수) 12:00 ~ 14:00
② 계약장소 : 당사 견본주택

2.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구 분	분양금액	비 고
금 융 기 관	신한은행	·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요망
계 좌 번 호	140-010-692290	
예 금 주	한국자산신탁(주)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상의 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금의 현장 수납은 불가하고,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체결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자필로 기재) 및 인감도장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1부(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 납입 영수증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법인계약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 납입 영수증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통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양식은 당사 견본주택내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재외동포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예: 부동산 매매계약용 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4.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정된 경우에는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설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③ 상가/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⑤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의치 등) 등은 건축허가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A타입 1,2,5,6호 라인은 A타입 3,4호 라인과 실별 공급면적은 동일하나 내부 기둥의 유무, 위치에 따라 상이함을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⑦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⑧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동 법령 제9조의3에 의하여 전매행위가 제한되오니 계약 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 2015년 11월 예정 (사용승인 이후)
1. 사용승인 예정일은 2015년 11월 예정입니다.
2. 입주예정일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3.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 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며, 사용검사 승인 전 입주는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 부적격자, 중복당첨자 등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면적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적오차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시 정산 처리됩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공급면적 표시사항을 증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평형면적 ㎡×0.3025)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공간은 오피스텔 층별(2층~10층) 계단 측면 부(8호 라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여건 및 주변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건설교통부 주관 30415-26905(1990.10.15))에 의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회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세대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 등을 공급회사에 이의 제기하지 못합니다.
- 본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입주지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각 공급 타입별 세대는 관련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인접거리 등을 확보하였으나, 일부 세대의 경우 불가피하게 부지 외부 기타 건축물 등에 의해 간섭받을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번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향후 단지 주변 인접대지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리플렛,전단,공급안내,홈페이지,신문광고 등)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시설(지하철,도로망,공공청사,차도,하천,광장,공원,녹지 등)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주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갑"이 동시 시공하는 평형 중 A타입 2.3층(3,4호) 기준으로 층고가 높게 설계되었으며 타기준층 및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설치타입을 제외한 타입은 설치되지 않으니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및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여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오피스텔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의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시공 도중에 관할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이것이 반영된 최종의 사용승인도서를 말한다)에 준하며, 이로 인해 수분양자(신탁회사, 분양사업자,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의 내용 및 사양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거쳐 차이점을 확인 후 최종 결의는 계약서로 합니다.
- 계약 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오피스텔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를 참고바랍니다.
-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령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 계약 관련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자산신탁(주)와 분양사업자간 체결한 분양관리신탁 계약에 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주)는 분양대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그 외에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건축관계자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분양사업자	삼일산업(주)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0, 1902(방이동,에스타워)	134211-0014532
시 공 사	(주)국제디와이	경기도 안산시 산단로19번길, 168(목내동, 206동 1호)	120111-0012914
건축·감리	건축사사무소 청인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54	110111-1039779
신탁 회사	한국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706-1)카이트타워	110111-2196304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간의 관계 : 신탁회사 및 자금관리사

■ 부동산개발업 표시
등록번호 : 서울140032 삼일산업(주)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0, 1902(방이동,에스타워)

■ 견본주택(분양홍보관) 위치 : 서울 강동구 강일동 679 중앙프라자 402호

■ 분양문의 : 02-429-0031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 국민은행 KB 국민카드 KB 투자증권
KB 생명 KB 자산운용 KB 캐피탈
KB 저축은행 KB 부동산신탁 KB 인베스트먼트
KB 신용정보 KB 데이타시스템

KB 금융그룹

신형 아반떼, 내년 초 조기 출격

24년간 누적 판매량 990만대… 현대자동차 대표모델
1.6ℓ GDi 엔진 개선 성능 높여… 디젤·전기차도 추가
제네시스·쏘나타 이어 1년여 만에 주력 3종 올체인지


5세대 아반떼(MD)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6세대에 해당하는 신형 '아반떼(개발명 AD)'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초 조기 출시할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신형 아반떼의 개발을 상당부분 완료하고 현재 도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차는 연말 최고 경영진의 시승을 거친 뒤 신형 아반떼의 구체적인 출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형 아반떼는 1.6ℓ GDi 엔진을 개선해 주행 성능과 연비효율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1.8ℓ나 2.0ℓ의 디젤 모델과 전기차도 추가된다.

아반떼는 1990년 10월 1세대 모델이 출시된 이후 24년간 국내외에서 누적판매 990만대(2014년 9월 기준)를 기록한 현대차의 대표 모델이다.

아반떼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평균 만 5년이 지난 뒤 다음 세대로 넘어갔다. 1세대가 시장에 첫 선을 보인지 4년 5개월 만인 1995년 3월 2세대 모델이 출시됐다. 이후 △2세대→3세대(2000년 4월 출시) 5년 1개월 △3세대→4세대(2006년 4월 출시) 6년 △4세대→5세대(2010년 8월) 4년 4개월이 각각 걸렸다.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갈 때는 만 5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아반떼의 세대 간 출시 기간 중 가장 긴 시간이 만 6년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간격이다. 현대차는 당초 신형 아반떼의 출시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보았으나 내수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형 아반떼가 출시되면 현대차의 내수 시장 점유율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아반떼는 올해 1~9월 국내에서 6만5075대가 판매됐다. 이는 기아차 모닝(6만7745대), 현대차 그랜저(6만6027대)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아반떼는 출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난 8월과 9월, 월별 기준 베스트셀링카에 오를 정도로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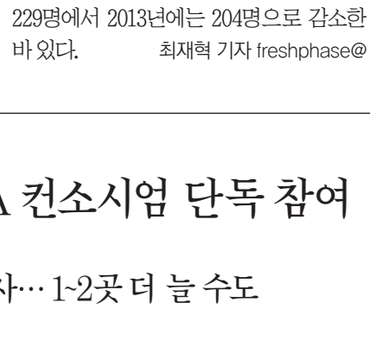
신형 아반떼가 내년 초 투입되면 현대차의 주력 모델들이 1년 안팎의 기간 동안 새롭게 출시되는 셈이다. 2세대 제네시스가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데 이어 LF쏘나타는 올해 3월 출시됐다. 이후 신형 아반떼가 내년 1분기 중 시장에 나오면 1년 4개월 안에 대표 차량 3종이 전면 교체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업체가 1년여 동안 주력 차량을 모두 새롭게 선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권오갑 사장 '경영쇄신' 고삐
현대重 다음주 중 임원인사

'전원 사직서' 지시 하루 만에
강환구 현대조선미포 사장 등
계열사 사장·본부장 인사 단행



취임 한 달을 맞은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이 회사를 숨가쁘게 변화시키고 있다.

14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취임한 권 사장은 다음주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내부 관계자는 "현재 울산에서는 일부 임원 승진 대상자에서 통보가 간 상황"이라며 "조만간 임원 인사가 있을 것이란 게 현장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 사장은 지난 12일 긴급 본부장 회의에서 260여명 전 임원에게 사직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하루 만인 13일에 계열사 및 본부장 인사를 단행, 조직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사장의 이번 임원인사 폭은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미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게 예견된 상황이어서 누가 떠나고 누가 남을 지가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권 사장이 지난 13일 단행한 현대중공업 일부 본부장과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놓고 업계는 중책을 유지할 고위 임원이 가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권 사장은 강환구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장(부사장)을 현대미포조선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윤문균 현대중공업 안전환경실장(부사장)은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외에 김환구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장(부사장)을 안전경영지원본부장으로, 주영걸 전무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장으로 순환 배치했다.

권 사장의 임원인사가 마무리되면 현대중공업 임원들은 100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임원 260여명 중 3분의 1인 70~90여명이 이번 인사를 통해 회사를 떠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임원은 2011년말 230명, 2012년 말 229명에서 2013년에는 204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수입자동차 국내 점유율 2배 커질 것"

27%까지 상승 전망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현재의 두 배가량인 2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자동차·통신 리서치업체인 마케팅인사이트는 7월 실시한 대규모 자동차 기획조사 결과, 현재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수입차의 점유율은 향후 27%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14일 밝혔다.

2001년까지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점유율 1%를 밑돌던 수입차는 2002년 1.3%의 시장점유율로 사상 처음으로 1%를 넘었다.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12년 10.0%로 10% 고지를 돌파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수입차 점유율은 14.1%를 기록, 사상 첫 15%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마케팅인사이트는 지난 1년 동안 새차를 구입한 소비자 5582명을 상대로 새로 산 차와 이전 차가 국산차인지 수입차인지를 묻고 이동 패턴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국산차를 타다 다시 국산차를 구입한 사람이 8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이동한 소비자가 11.0%, 수입차 재구매자가 3.7%, 수입차에서 국산차로 이동한 사람이 1.7%로 집계됐다.

김범근 기자 nova@

녹십자 독감백신 1억도즈 돌파

녹십자가 지난 2009년 전남 화순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생산한 지 5년 만에 누적 생산 1억 도즈(1도즈는 성인 1회 접종량) 고지를 넘어섰다.

녹십자는 2009년 이후 지난달 초까지의 독감백신 누적 생산량이 1억 도즈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독감 원액을 생산하기 시작, 독감백신 자급자족시대를 열었음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 결과다.

독감백신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10여개 나라 정도만이 기술을 보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자 위주의 구조다. 녹십자는 독감백신 원액을 국내 최초로 생산하면서 '백신주권'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판데믹 당시 외국 백신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국내에 전량 공급했다.

회사 측은 올해 녹십자 독감백신 연간 매출은 단일제품으로는 지난 2010년 초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매출을 제외하면 창립 이래 최초로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IT 스마트 신기술 한자리에… '2014 한국전자전' 개막



국내 최대 전자산업 박람회인 '2014 한국전자전'이 14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LG전자 부스에서 모델들이 최신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올해로 45회째를 맞는 '2014 한국전자전'은 17일까지 계속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고맙다 G3"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G3' 인기돌풍에
MC사업부 깜짝실적…새 캐시카우 부상

사업부가 LG전자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재도약할 전망이다. 전략 스마트폰 'G3' 인기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MC사업부가 10여년 만에 과거 '초콜릿폰' 돌풍을 재현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년여 만에 HE(홈엔터테인먼트) 및 HA(홈어플라이언스) 사업부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위주의 수익구조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전환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올 3분기 1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MC사업부는 G3 인기를 시작으로 점차 이익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7년 2분기 출시한 피처폰 초콜릿폰의 인기로 MC사업부는 평균 3000억~4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LG전자의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인 스마트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2010년 2분기 MC사업부는 적자로 전환하며 실적 부진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출시된 G3 흥행이 MC사업부의 과거 위상을 되돌려 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G3의 올 하반기 분기별 판매량이 300만대 안팎을 기록하며 MC 사업부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새 TV를 중심으로 한 LG전자의 주력 사업부인 HE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2012년 40%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30%대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10% 후반에 머물렀던 MC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20%대까지 높아졌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 4분기 G3 판매지역이 유럽, 신흥 시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G3 판매량은 3분기 320만대, 4분기 280만대 등 분기별 300만대 전후를 기록, 내년 2분기에는 G3 10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판도라TV '모바일 메시징' 시장 출사표

'노바토' 인수 합병

동영상 기업인 판도라TV가 모바일 메시징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최근 사이버 검열 등으로 위세가 떨어진 카카오톡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판도라TV는 노바토를 100%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 합병했다고 14일 밝혔다.

판도라TV는 이를 통해 모바일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용자간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판도라TV 김경익 대표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판도라TV의 소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노바토 측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판도라 TV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십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노바토는 아산나눔재단이 주최한 2013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높은 성장가능성을 입증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 올 7월 출시한 그룹메신저 '잼'은 △하트날리기 △비밀메시지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특히 가입한 그룹마다 각각의 다른 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어 청소년 층과 20대 여성에게 주목받고 있다. 잼은 출시 3개월만인 10월 현재 누적 다운로드수 30만건, 하루 550만 건이 넘는 메시지를 생성하고 있다.

박성제 기자 psj@

동부하이텍 본입찰, IA 컨소시엄 단독 참여

SMIC·한앤컴퍼니도 참여 의사… 1~2곳 더 늘 수도

동부하이텍 매각 본입찰에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아이에이(IA)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하이텍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이 13일 본입찰 마감 결과, 애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IA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IA 컨소시엄을 비롯해 중국 반도체업체 SMIC, 국내 투자펀드 한앤컴퍼니, 미국계 투자펀드 베인캐피탈-대만 파운드리 업체 UMC 컨소시엄 등 4파전을 예상했다.

산은 관계자는 "현재 본입찰에 참여한 곳은 IA컨소시엄 한 곳"이라며 "SMIC와 한앤컴퍼니도 인수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추가로 1~2곳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인캐피털과 손잡고 뒤늦게 인수전에 참여한 대만 반도체 업체 UMC는 막판에 입찰을 포기했다.

이번 본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IA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차량용 반도체, Wi-Fi(무선랜)칩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김종진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딜 관계자는 "IA측이 동부하이텍 인수시 자동차업계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실제로 인수 의지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정·김경아 기자 mjk@

동국제강, 유니온스틸 흡수합병

동국제강이 계열사 유니온스틸을 흡수합병한다.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은 지난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재무구조 안정화와 사업통합 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양사의 합병을 의결했다.

합병 방식은 동국제강이 지분 64.5%를 보유한 자회사 유니온스틸을 흡수 통합한다. 양사의 합병 비율은 1대 1.78로 유니온스틸 1주당 동국제강 주식 1.78주를 배정하게 된다. 동국제강과 유니온스틸은 동국제강의 합병승인 이사회와 유니온스틸의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을 기한으로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이번 합병 배경은 동국제강의 후판, 철근, 형강 등 열연 사업부문과 유니온스틸의 냉연사업을 통합해 재무구조 안정화와 사업 다각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삼성전자 "밀크뮤직 유료화 적극 검토"

삼성전자가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뮤직'의 유료화 방안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밀크뮤직 전면 유료화부터 무료·유료 이원화 체제 등 서비스 지속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삼성전자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13일 소리바다에 밀크뮤직 관련 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밀크뮤직 유료화를 내부 결정하고 서비스 방안 수립에 착수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밀크뮤직 전면 유료화부터 미국 밀크뮤직 운영 방식과 같은 일부 유료화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 밀크뮤직은 유료와 무료 이원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재 국내 밀크뮤직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추천하는 음악을 들어야 한다. 반면, 한 달에 3.99달러(약 4000원)를 부담하는 유료 서비스 소비자는 듣고 싶은 음악만 듣거나 일부 음악을 저장해 두었다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료화 여부가 쟁점인 만큼, 전부 및 일부 유료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저협도 즉각적인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음저협과 소리바다가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 관계자는 "한 달 내에 밀크뮤직 유료화 사안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와 소리바다 등과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최대·최고·최초로, 입고 먹고 즐긴다

베일 벗은 롯데월드몰

오늘 에비뉴엘 시작 3일간 순차 오픈
해외 명품 90개 등 1000개 브랜드 입점
쇼핑몰, 1930년대 종로 등 재현 눈길
'롯데시네마' 스크린 크기 기네스북에

국내 최대 규모·최고 높이의 복합쇼핑몰 롯데월드몰이 베일을 벗었다. 롯데월드몰은 오늘 에비뉴엘·롯데마트·하이마트를 시작으로 15일에는 롯데시네마, 16일 쇼핑몰·면세점·아쿠아리움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오픈을 하루 앞둔 13일, 찾은 롯데월드몰은 손님 맞이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높이와 규모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롯데월드몰은 초고층을 제외한 연면적만 2만8934㎡(12만9753평)에 달한다. 롯데월드몰에는 에비뉴엘을 비롯해 국내 최다인 420개 브랜드가 입점되는 면세점, 다양한 패션·생활용품과 다채로운 먹거리까지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쇼핑몰, 국내 최대 규모의 시네마와 아쿠아리움을 비롯해 롯데마트, 하이마트까지 약 1000개에 이르는 브랜드가 들어선다. 특히 롯데월드몰에서 첫 모습을 공개하는 브랜드만 50개에 달한다.

에비뉴엘에 들어서자 1층에 입점된 세계 3대 명품 에르메스와 샤넬, 루이비통 매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3곳의 매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플래그십 매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에르메스는 에비뉴엘과 면세점에 매장을 오픈한다.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은 "에비뉴엘은 롯데백화점 본점 명품관의 3.1배 규모에 225개의 브랜드가 들어서는 국내 최대 명품전문 백화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해외명품 브랜드 수만 9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쇼핑몰은 다양한 볼거리가 압권이었다. 쇼핑몰에는 1930년대 종로거리와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명동거리를 최초로 재현한 '서울서울3080'과 이국적인 풍경을 담은 '29스트리트', 토요타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자동차 전문 복합문화·전시공간이 눈길을 끌었다.

면세점에는 '국산 화장품존'과 '한류패션 전문존'을 구성해 아시아 최고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먹거리도 다채롭게 구성했다. 전국의 전통 맛집은 물론 각국을 대표하는 레스토랑이 들어섰다. 남녀노소 함께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도 다양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21개관 4600여석의 롯데시네마 월드타워는 기네스북 인증 세계 최대 스크린(34mx13.8m)이 설치된 초대형관 슈퍼플렉스G, 국내 최대 규모의 4D관인 슈퍼4D, 아시아 최초 도입 '4K퀀텀영사시스템', 현존 최고 사운드 기술 '돌비애트모스' 시스템 도입 등 최고의 영화관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다.

수족관도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국내 최다 650종, 5만5000여 마리 해양생물, 14종의 국내 최다 체험·교육 프로그램, 가로 25m의 메인 수조창, 85m의 수중터널이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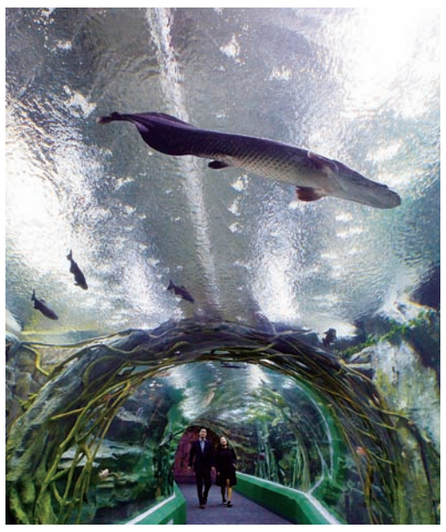
롯데그룹은 롯데월드몰의 안전과 야기할 수 있는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사인 롯데물산 이원우 사장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잠실역 사거리 지하에 축구장 1.5배에 달하는 공원과 버스 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종합방재실에서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롯데월드몰 내에 피난 안전구역을 3군데 설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









제2롯데월드 저층부(롯데월드몰)가 오늘부터 사흘간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내부에 샤넬로고를 형상화한 계단이 눈길을 끌었다. 에비뉴엘 내부, 아쿠아리움, 엔터테인먼트동, 면세점(맨 위에서부터 시계방향).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신세계 '협력사와 상생' 5년간 110억 투자

저리 대출 등 동반성장펀드 운용

신세계그룹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5년간 11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신세계 동반성장 비전 2024'를 선언했다.

신세계와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협력회사와의 성과공유를 강화하는 취지로 5년간 동반성장 투자재원 기금 11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마트가 85억원, 신세계백화점이 2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 동반성장 투자재원 기금은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협력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및 기술·경영자문, 인력자원 개발을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지원, 복지향상 등에 활용된다.

또한, 협력회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펀드 등 직·간접 금융지원을 총 5500억원 규모로 확대·운영한다.

신세계그룹은 중소협력회사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존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도 편리하게 납품 상담과 함께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동반위와 '구매알선협력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마트는 수출관리 시스템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에 적극 나선다. 올해 34개 중소회사 상품의 3개국(미국, 홍콩, 몽골)의 36만달러 수출 규모를 연 20%씩 늘려 매년 두 자릿수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인 터 뷰 이정욱 애경산업 브랜드마케팅팀 대리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주부 마음 잡았죠"

'트리오…' 3개월만에 28만개 판매
피부 자극 없고 유아 식기에도 적합



올 상반기 생활·세면업계 트렌드는 천연성분을 소재로 한 제품이다. 현재는 많은 천연성분 중에 이같은 트렌드를 베이킹소다가 이끌어 가고 있다. 소비자 조사기관인 AC닐슨에 따르면 업계추산 연 100억원 규모의 분말 베이킹소다 시장은 올 상반기에 시장 규모가 전년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같은 트렌드는 주방세제 시장 판도도 바꿨다. 애경산업도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주방세제를 만들어 소위 대박을 쳤다. 대박의 주인공은 브랜드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이정욱 대리다.

8월 출시된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는 3개월 만에 28만개가 판매되면서 마일드 주방세제 카테고리 3위까지 뛰어올랐고,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MS)을 높이고 있다. 친환경 살림 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성분 베이킹소다를 액상형태로 녹여 사용하기 편하게 했고, 구연산을 더해 찌든 때 세정, 소취 등 베이킹소다와 시너지를 낸 것이 인기 비결이다.

트리오 베이킹소다는 식품첨가물 베이킹소다와 과일에 주로 함유된 구연산 등 천연원료를 사용해 피부에 자극이 없고, 유아 식기 세정에도 적합하다. 야채와 과일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주방세제 인증도 받았다.

이정욱 대리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세탁세제는 고심해서 고르는 반면 주방세제 쇼핑에는 긴 시간을 쓰지 않는다"며 "주부들이 편하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가격대를 맞추면서도,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으로 성분을 강화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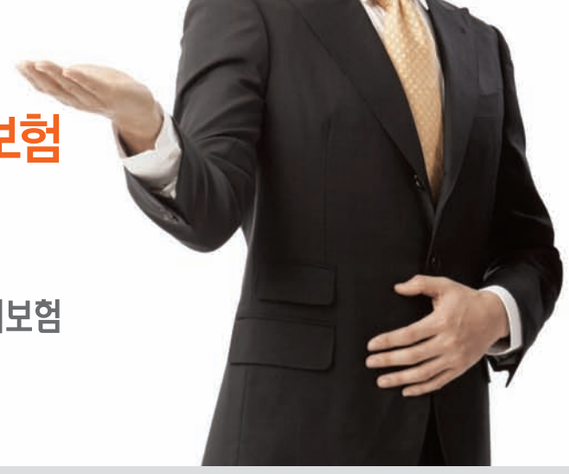
합리적인 가격대, 차별화된 성분, 눈에 띄는 디자인까지 일사천리였지만 고비도 있었다. 베이킹소다와 천일염 모두 향을 쓰기 애매해 마지막 단계에서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린 것. 이 대리는 "베이킹소다나 천일염 자체는 향이 없기 때문에 사용감을 높일 수 있는 향기를 찾느라 오래 고민했다"며 "완전히 맞는 향은 아니지만 제품 콘셉트인 '깔끔함'과 연결해 답을 찾았다"고 돌이켰다. 결국 트리오 베이킹소다에는 음료에 주로 쓰이는 소다향이, 트리오 천일염에는 깔끔한 느낌을 주는 라임향이 들어갔다.

이정욱 대리는 "1966년 출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주방세제 브랜드인 트리오 매니저로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트리오를 토털 주방 솔루션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다람 기자 zing@



내 아이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기에
LIG손해보험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자녀보험에 담았습니다
아이의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해지고
그 희망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LIG손해보험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무배당
LIG NEW 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믿음에서 일생까지!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3-2857호(2013.12.30)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www.LIG.co.kr • 고객콜센터 :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현대 vs 대림' 수원 영통서 분양大戰

노후 아파트 비율 71% 달해 7년만에 신규공급 관심집중

대림산업 'e편한세상' 662가구 전용 59·74㎡에 세가지 타입 판상형 구조 통풍·채광 우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2140가구 수도권 남부 단일 최대 규모 전용 62·71·84·107㎡로 다양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영통' 조감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현대건설과 대림건설이 자존심을 건 분양전을 치른다.

수원 영통구는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주변에 산업시설이 있어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광교신도시와 삼성디지털시티,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삼성클러스터가 있어 기본적으로 주거 수요가 탄탄하고 삼성전자 나노시티, 삼성 DSR타워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한 영통구 일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71%에 달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때문에 영통지역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는 올해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소형 아파트의 전세가 비율이 90%를 육박할 정도로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 주택시장의 강자 대림산업이 분양에 나선 데 이어 업계 맏형인 현대건설도 이달 중 분양을 서두르며 자존심을 건 분양전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대림산업은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대에 위치한 'e편한세상 영통2차'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2007년 입주한 'e편한세상 영통1차'에 이은 2차 분양으로 총 662가구 규모다. 'e편한세상 영통2차'는 2개 단지로 지어진다. 1단지는 지하 1층~지상 24층 5개동 392가구, 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4층 5개동 270가구 규모다. 주택형은 주거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A타입 228가구 △59㎡ B타입 103가구 △74㎡ 331가구다. 입주는 2016년 11월 예정이다.

'e편한세상 영통2차'는 중소형 면적임에도 혁신적 평면설계를 선보인다. 59㎡ A타입과 74㎡ 타입의 경우 전 가구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판상형 구조로 배치했다. 특히 59㎡ A타입은 침실 3개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한 4-bay(베이) 구조로 설계해 소형 면적임에도 다양하고 알찬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오는 16일 1·2순위, 17일 3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이며, 28~30일 당첨자 계약을 받는다.

현대건설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일대에 올 하반기 수원지역 단일 단지 최대규모인 '힐스테이트 영통' 214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영통은 올해 수도권 남부에서 최대 규모 단지로 지하1층~지상 최고 29층 21개동 총 2140가구로 지어진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62㎡ 442가구(A·B·C타입 구성) △71㎡ 442가구 △84㎡ 1148가구(A·B타입 구성) △107㎡ 108가구로 구성된다.

전 가구 중 95%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가구가 평면과 채광이 우수하고 공간 효율성이 높은 4베이 구조로 설계 됐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느 해보다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수원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가운데 최대이고 전 가구를 남측향으로 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신도시 분양권 불법거래 기승

위례·동탄2·판교 억대 웃돈 국토부 "떴다방 등 단속강화"

규제완화를 담은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이후 다운계약서나 떴다방 등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 인기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판교 등 인기지역 분양권이 억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며 불법거래를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정을 넘자마자 수백명이 몰려드는 분양권 야시장이 5년 만에 등장했다"며 "건설업체들은 떴다방을 홍보자료에까지 활용하고 심지어 일정 금액의 사례금을 주고 불러모으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민간아파트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당첨된 후 1년 안에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일명 '떴다방'도 단속대상이다.

분양권에 과도하게 프리미엄이 붙자 다운계약서를 불법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적발된 다운계약서 작성은 총 1084건으로 연간 227건에 달한다.과태료 규모는 42억12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자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함께 투기 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사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계도와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삼성물산, 싱가포르서 4번째 '안전대상'

도심 지하철 공사 수행력 인정


삼성물산 싱가포르 도심지하철(DTL) 3단계 923현장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주관하는 '2014년 LTA 안전경진대회(ASAC)'에서 최고상인 대상(Champion)을 수상했다. 박호윤 923현장소장(왼쪽)과 양은규 Civil사업부 상무(가운데)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장관 Micheal Lim(오른쪽)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4번째 안전대상을 수상하며 싱가포르 건설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삼성물산은 지난 7일 싱가포르 도심지하철(DTL) 3단계 923현장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주관하는 '2014년 LTA 안전경진대회(ASAC)'에서 최고상인 대상(Champion)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으로 뽑힌 업체에는 향후 육상교통청의 발주 공사 입찰 시, 기술점수에서 가점을 얻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에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싱가포르에 진출한 건설사에는 큰 영예로 여겨지는 권위 있는 상이다.

삼성물산 DTL 923현장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으로부터 서쪽으로 3km 떨어진 지역에 정거장 1개소와 총 연장 900m의 터널을 연결하는 공사로 64개월의 촉박한 공기와 도심지 중앙에 위치한 어려운 작업여건 속에서 안전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기존의 도심지 왕복 6차선을 관통해 지나가는 공사로 11번의 도로이설을 해야만 하는 도로환경 속에서 지하부 상하수도관, 고압전력선, 광통신망이 얽혀 있는 싱가포르의 밀집된 상황은 공사 수행의 최대 난점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물산 DTL 923현장은 여러 최신 장비와 기법을 안전관리에 도입했다. QR코드를 작업과 장비에 적용해 공사 수행 이전에 작업의 중요 포인트와 장비의 속성을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다시 도면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덜어줌과 동시에 현장에서 바로 작업을 대입할 수 있도록 했다. 3차원 설계공법인 BIM 시공관리, 지장물 탐사장비의 적용 또한 DTL 923현장의 우수관리 포인트다.

강영관 기자 kwan@

부쩍 준 4분기 입주물량 "전세수요자 서둘러라"

전국 96곳서 총 5만501가구 작년보다 1만1463가구 줄어 "전셋값 상승세, 빠른 선점을"

올 4분기 전국에서 5만여 가구가 입주한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12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입주물량은 96곳 총 5만501가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1964가구에 비해 1만1463가구 감소한 물량이다.

수도권에는 28곳 1만4122가구, 지방에는 68곳 3만6379가구가 각각 입주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부산이 14곳 7902가구로 입주물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가 14곳 7703가구, 세종 11곳 6605가구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입주물량이 가장 많으며 서울은 10곳 4003가구, 인천은 4곳 2416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입주물량 중 대표적 단지로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 '래미안밤섬리베뉴1·2단지'(10월 말) △경기 파주시 와동동 '운정신도시롯데캐슬'(11월) △경기 평택시 비전동 '평택소사벌 B-3블록'(11월) 등이 있다.

올 4분기 지방에 입주하는 대표적 단지로는 부산 대신동 '대신롯데캐슬'(10월 말), 울산 중구 우정동 '우정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C2블록, 11월)' 경남 창원시 북면의 '창원무동지구3차휴먼빌'(12월) 등이 꼽힌다.

남은 하반기에 5만여 가구가 집들이를 함에 따라 전세 수요자들은 입주단지 위주로 물량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써브가 지난달 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6%가 '4분기에도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공인중개사들이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셋값 상승세가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분기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수요자라면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물건 선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화성향남2·봉담지구등 LH, 토지 14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향남2, 남양뉴타운, 봉담지구 주차장용지 13필지,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1필지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차장용지는 30%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며 474~3812㎡의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됐으며, 예정가격은 3.3㎡당 241만~704만원대로 공급된다. 화성봉담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점포겸용으로 면적은 270㎡, 가격은 3.3㎡당 450만원으로 주변 단독주택과 인접해 있다. 향남2지구는 지구 내 18개 공동주택용지 중 2015년 초 5개 블록 4022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나머지 공동주택용지 블록과 단독주택, 학교용지 등의 지속적인 착공으로 인구가 빠르게 유입될 전망이다. 남양뉴타운의 주차장용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용지 내에 위치하고 공동주택 2000가구의 착공으로 배후가구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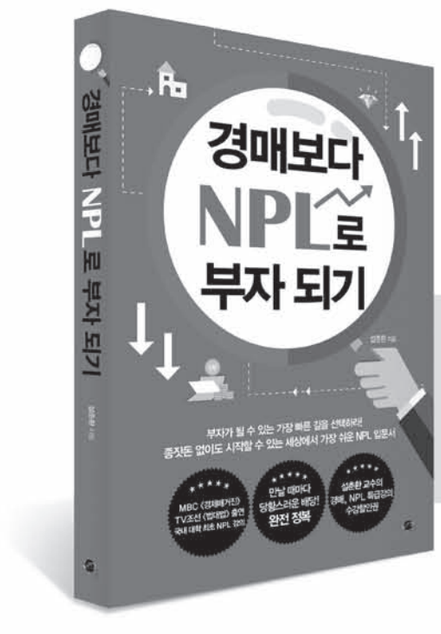
강영관 기자 kwan@

스마트폰에서 〈QR코드리더〉로 확인하세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라!

종잣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NPL 입문서

화제의 신간 주문 쇄도!



인생의 마지막 반전!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재테크서

MBC 〈경제매거진〉 TV조선 〈법대법〉 출연 국내 대학 최초 NPL 강의

만날 때마다 당황스러운 배당! 완전 정복

설춘환 교수의 경매, NPL 특급강의 수강할인권

저자는 우리 대학에서 '경매와 NPL 실전강의'로 그 명성이 이미 자자합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의 인기비법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고를 읽어보니 그 내용의 깊이가 '역시!'였습니다. 돈맛을 안다는 것은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이라고 봅니다. 초보자에서부터 실전경험이 있었으나 대어를 낚을 때 느끼는 손맛을 느껴보지 못하고 허하셨던 분들께도 안성맞춤의 노하우를 담아낸 노력과 정성에 박수를 보냅니다. —장대섭 교수, 부동산학 박사,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산업연구원장

경매보다 NPL로 부자 되기

설춘환 지음 | 304쪽 | 15,000원

무한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 기술력 - 뱅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IG BANG GOLF JAPAN

골프가 쉽고 편해진다

40yd 더 나가는 아이언

긴 거리를 더 짧은 클럽으로 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



10번 아이언

6번 아이언 거리를 이제 10번으로 친다.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BANG Longdistance

반발계수 0.925 극초고반발 Hybrid IRON

세계최초

일반적인 아이언 보다

- 극초고반발 기술 + 우드형 헤드설계로 인해서 40yd 더 나간다.
- M.O.I가 높고 Sweet Spot이 넓어서 방향성이 훨씬 좋다.
- 총 중량이 더 가볍고 헤드밸런스도 가벼워서 스윙이 쉽고 편하다.
- 트랙맨(TrackMan) 분석결과 백스핀이 1.12배 더 증가했다.
- 헤드의 솔이 넓기 때문에 뒤땅이 없다.
- 쓸어치게 되기때문에 엘보우가 없다.





반발계수 0.925 » 0.930 » 0.962의 연속적인 세계최고 극초고반발 기술개발 성공으로 비거리가 30~40yd 증가

뱅 Longdistance (470 Driver · Fairway WOOD · Hybrid WOOD · Hybrid IRON)

뱅 Longdistance의 경쾌한 타구음과 손맛을 경험하면 다른 골프채는 둔탁한 느낌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골프 해설가 75%, KL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뱅 Longdistance 골프 클럽 사용

대표전화 : 1544-8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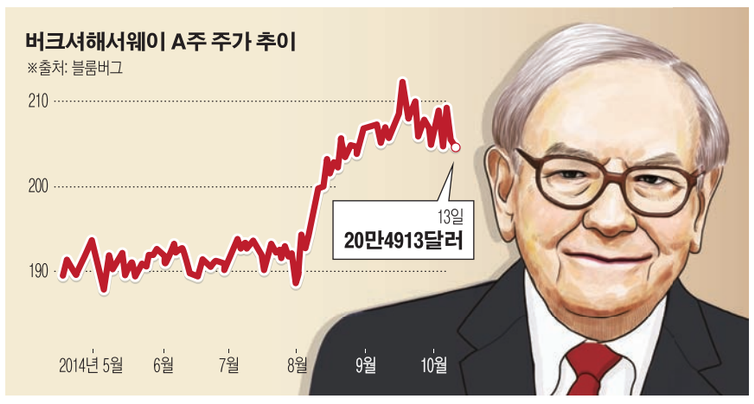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주의 –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것은 모조품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본 점 (02-310-1538) 영등포 (02-2639-1536) 충청점 (041-640-5753) 광주점 (062-360-1402)
강남점 (02-3479-1532) 인천점 (032-430-1563) 부산점 (051-745-1823)
경기점 (031-695-1845) 의정부 (031-8082-0712) 마산점 (055-240-1406)
·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 안양베네스트 cc · 동래베네스트 cc · 가평베네스트 cc
· 이포 cc · 안양베네스트연습장 · 센추리21 cc
· 신원 cc · 아시아나 cc · 해비치 cc 서울
반포 골프백화점 (02-534-0220)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버크셔’ 이름값 앞세워 부동산 사업확장

에이전시 운영 ‘홈서비스’ 美 이어 亞·유럽까지 진출
최근 자회사 사명 변경…“거대 브랜드로 육성 계획”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버크셔해서웨이 브랜드를 본격 육성하고, 이를 앞세워 유럽과 아시아 부동산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버핏은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부동산사업을 위해 버크셔해서웨이 라이선스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자신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버크셔해서웨이를 유력 소비 브랜드로 키우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FT는 전했다.

버핏은 최근 사들인 유틸리티기업과 부동산, 자동차판매기업에 대해 버크셔해서웨이라는 명칭을 이미 일부 쓰고 있으며,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버크셔를 단순한 투자 지주회사가 아닌, 거대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브랜드 컨설팅기관 밀워드브라운베르메르의 오스카 유안 파트너는 “버진이 리처드 브랜슨 회장의 반항적인 기질을 상징하고, 애플이 고(故) 스티브 잡스 창업자의 천재성을 대표하듯이 버크셔해서웨이는 (버핏의) 신뢰와 안정 그리고 도덕성을 보여주는 브랜드”라고 평가했다.

버핏은 버크셔해서웨이홈서비스라는 브랜드로 내년 봄에 미국 전역에서 1400여 개의 부동산에이전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버크셔와 브룩필드애셋매니지먼트의 프랜차이즈 합작벤처인 HSF어필리에이츠의 얼 리 최고경영자(CEO)는 버크셔해서웨이홈서비스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CEO는 “신뢰와 소비자 서비스 그리고 장수라는 가치는 가장 오래된 단일 금융투자기관을 만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버크셔해서웨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또 그에 따른 의무도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버크셔는 HSF어필리에이츠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부동산사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버크셔해서웨이의 부동산사업 부문의 매출은 지난 상반기 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것이다.

버핏은 이달 초 인수한 미국 5위 자동차 판매업체 밴튭 역시 사명을 버크셔해서웨이오토모티브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버핏은 올해 초 미드아메리칸에너지와 패시피코프를 포함한 유틸리티사업의 명칭을 버크셔해서웨이에너지로 변경했다.

버핏은 지난 1965년 당시 섬유기업이던 버크셔해서웨이를 사들여, 거대 지주회사로 성장시켰다. 버크셔의 A주 주가는 20만 달러가 넘으며, 시가총액은 3300억 달러에 육박한다.

버크셔해서웨이는 IBM 코카콜라 웰스파고 월마트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거대 브랜드 기업의 주요 주주이기도 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구글 최대 라이벌은 야후 아닌 아마존”

에릭 슈미트 회장
“소비자, 검색 통해 물건 구매”
“우린 여러 웹사이트 중 하나”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사진〉이 검색 서비스 최대 라이벌로 아마존을 지목했다.

슈미트 회장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구글은 여러 웹사이트 중에 하나일 뿐”이라며 아마존의 부상을 언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은 현재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유럽의 정책적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독일은 구글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슈미트 회장은 “차세대 소비자들은 모바일을 사용한 인터넷 검색에 더 관심을 둘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구글의 라이벌로 꼽히는 아마존과 페이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주요 경쟁업체로 검색 서비스 빙(Bing)이나 야후(Yahoo)를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경쟁자는 아마존”이라고 지목했다. 아마존 사용자들이 검색 서비스를 통해 물건까지 구입할 의향까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슈미트 회장은 ‘옐프’, ‘트립어드바이저’ 등 온라인업체들이 구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들의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글은 게이트키퍼로 불리며 규제를 받았던 기업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누구도 구글 사용에만 집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최근 구글의 독점적 지배력을 내려놓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구글은 유럽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지난달 구글 검색 서비스 관련 독점 조사에 대한 회사의 3번째 합의방안을 거부하는 등 강경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글 논란은 유럽과 미국이 신경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독일 법무장관인 하이코 마스는 “구글은 검색엔진 랭킹에 쓰이는 알고리즘에 대해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키미트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독일과 같은 수출 주도의 경제에 놓여 있는 유럽 회사와 국가들은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빗장풀린 中채권시장 美 ETF가 들어간다

도이체방크·글로벌X펀드 등
국채·회사채 위안화 자산 투자
환율·디폴트 등 리스크 불구
선진국보다 수익률 높아 매력



미국 투자회사들이 중국 채권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고 13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그간 외국 투자자에게 폐쇄적이었던 중국 채권시장이 급성장세와 함께 빗장을 푼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크레인셰어 글로벌 X펀즈와 반에크글로벌 등 최소 4곳이 중국 본토 채권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일부 펀드는 중국 국채와 회사채 등 위안화 자산에 투자, 나머지는 기업 어음처럼 보다 세분화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 채권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투자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X펀드의 브루노 델 아마 최고경영자(CEO)는 “그간 외국투자자들의 접근을 제한해온 터라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 것은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국 시장이 커지고 중국 정부가 자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더 많은 투자자가 진입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채시장 규모는 3조 달러(약 3200조원)에 이르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중국 내 회사채 시장규모도 1조 5000억 달러로 성장했다. 올 들어 중국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새로 2610억 달러를 조달한 덕분이다. 지난 6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의 회사채 시장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을 넘어섰으며 향후 5년 안에 글로벌 회사채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채권시장은 환율은 물론 디폴트(채무불이행)나 정부 규제 등 리스크가 높지만 미국 국채를 비롯한 다른 국가 채권과 비교하면 증시 연관성이 낮은데다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치고 있다.

실제로 중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 내외지만 미국과 영국 10년물 국채는 2.3% 정도에 그친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의 기대처럼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더 둔화한다면 금리가 떨어져 이들 채권의 가치는 더욱 오를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세실리아 챈 HSBC 글로벌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수익률이 매력적인 수준”이라면서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이 자국에서 얻을 수 없는 수익률을 얻고자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유가 하락세 지속 80달러 깨질수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수요 감소
OPEC 일부 공급가격도 내려

유가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상황이 악화하는 이른바 ‘퍼펙트스톰’의 영향권에서 당분간 벗어나질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 대비 8센트(0.13%) 하락한 배럴당 86.0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1.7% 떨어진 배럴당 88.50달러선까지 밀려났다.

이런 하락세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댄 스토블러 하이타워벨뷰 상무이사는 유가가 향후 몇 달간 1970년대 중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글로벌헌터증권의 리차드 해스팅스도 “배럴당 80달러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과 중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 성장 우려가 원유 수요 감소 전망으로 이어진 것이 유가에 부담이 됐다. 여기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증가한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 일부 회원국이 원유 공급 가격 인하방침을 내놓으면서 공급과잉 우려까지 겹쳤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933kg짜리 ‘슈퍼 호박’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프문베이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호박무게챔피언대회에 참가한 한 남성이 호박의 무게를 재고 있다. 이 호박은 2058파운드(약 933.49kg)로 미국 북부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하프문베이/AP연합뉴스

“에볼라에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초콜릿업계, 서아프리카 농가 지원

네슬레와 마르스 등 세계 굴지의 초콜릿 업체가 에볼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메이저 초콜릿업체는 코코아 주요 산지인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여파로 공급망이 붕괴하는 것을 우려해 행동에 나섰다고 13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비영리기구로 서아프리카의 소규모 코코아 농가를 지원하는 세계코코아재단은 네슬레와 마르스는 물론 허쉬와 고디바 기라델리 제너럴밀스 몬델리즈인터내셔널 등 초콜릿업체에 기부를 요청했고 업체들은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 재단은 이들 업체로부터 모은 자금을 국제적십자사와 카리타스 등 에볼라와의 전쟁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네슬레는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 확산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며 “이 지역은 6300명 아프리카 직원의 대부분이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스는 “세계코코아재단의 에볼라 퇴치 노력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서아프리카는 세계 코코아 공급의 70%를 책임지고 있다. 세계 최대 코코아 산지인 코트디부아르는 아직 에볼라가 전염되지 않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리포트

혼다, 안전벨트 결함 4만여대 리콜

일본 혼다자동차가 안전벨트 결함으로 리콜에 나선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럭셔리브랜드 어큐라의 2014년형 RLX 세단과 크로스오버 차량 MDX(2014~15년) 등 4만3000대가 리콜 대상이며, 리콜은 미국에서 실시된다.

혼다는 영하 17도 이하에서 전면 안전벨트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다.

혼다에 따르면 이같은 결함과 관련된 사고 또는 부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中 ‘금 거래 허브’ 조성 박차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인 중국이 ‘금 거래’ 허브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달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 금 현물 거래소가 개장한 데 이어 올해 홍콩에 금 선물 거래소가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들 거래소는 각각 위안화와 홍콩달러로 거래가 진행된다. 이에 대해 WSJ는 중국이 금 거래 및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금 소비와 생산, 수입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지난해 중국 금 수요는 1300t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160% 늘었다. 인도까지 포함한 아시아의 수요는 전세계 수요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금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여기고 금 세공품이나 금괴, 금화 등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막대한 금 소비량에도 거래 가격 결정에는 소외돼 있었다. 현물 가격은 1919년 이후 영국의 바클레이스, HSBC홀딩스, 노바스코티아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 등 4개 기관이 하루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정하고, 선물 가격은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결정된다.

이 때문에 그간 중국 내에서는 높은 금 수요에도 자국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서도 제외된 점에 대해 끊임없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드만삭스, 홍콩 성장전망 하향

홍콩에서 민주주의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관광객 지출 감소로 홍콩의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13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 2.5%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앤드류 틸튼 등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관광산업은 성장률 전망 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달 초 중국 국경절 연휴에 홍콩은 사회불안으로 관광객 지출이 줄어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1~7일)에 중국 본토 관광객은 97만명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부진한 수치다. 특히 당시 많은 가게와 레스토랑이 문을 닫아 홍콩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중국 본토는 홍콩 쇼핑객 지출의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홍콩 소매판매에서 관광지출 비중은 약 3분의 1에 달했다고 골드만삭스는 지적했다.

'임단협 타결' 현대차 노사, 전통시장으로

윤갑한 사장·이경훈 위원장 등 울산 수암시장 방문
과일·생선 직접 구입… '전통시장 살리기' 한뜻 모아
올 전통시장 상품권 1인당 20만원 지급 모두 128억



윤갑한 현대차 사장(왼쪽)과 이경훈 현대차 노조지부장이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으로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최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지은 현대자동차 노사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4년간 상품권 328억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이경훈 현대차 노조 위원장은 13일 울산시 남구 야음동 수암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과일, 생선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대차 봉사단도 시장에서 떡 30되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구입해 상인들에게 나눠주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일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지난 6월 3일 첫 상견례 이후 4개월 만이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임금협상 내용 중 현대차 노사는 올해 직원 1인당 20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상품권 규모는 울산공장만 73억원, 현대차 전체로 보면 128억원어치다.

앞서 현대차는 올해 추석 선물비(복지포인트 또는 사이버머니) 1인당 25만원 가운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총 36억원(울산공장 20억원) 상당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설과 추석 두 차례 모두 124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울산공장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현대차 노사의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은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째로, 구입한 전통시장 상품권 규모는 총 328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이외에도 2009년부터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총 16억50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날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 임직원을 비롯해 많은 시민이 값싸고 품질 좋으며, 인정 넘치는 전통시장을 애용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내달 방한 앞둔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한국 미래지향적 성향 존경"



지난 8일(현지시간) 빌럼 알렉산더르(왼쪽) 네덜란드 국왕이 "한국인들의 미래지향적 관점을 언제나 존경해왔다"고 말했다. 신화/뉴시스

다음 달 국빈 방한을 앞둔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한국인들의 미래지향적 관점을 언제나 존경(admire)해 왔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업무용 궁전인 노르트에인더궁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은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언제나 한국인의 정신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고 그들의 미래지향적 관점을 존경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3~4일 막시마 왕비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네덜란드 국왕의 국빈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은 "이번 한국 방문을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양국의 좋은 협력을 확인하고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방한의 의의와 관련해 그는 반세기 이상 이어져 온 양국의 외교관계와 유서깊은 유대관계를 강조했다.

앞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이 왕세자였던 시절에 총 4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2003년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으로서 동계올림픽 후보지 실사를 위해 평창을 찾은 바 있다.

한국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성사시킨 것과 관련해 방한 당시 그는 "올림픽 유치에 대한 높은 국민적 의지를 느꼈고 이를 실제로 보여준 것이 유치 성공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한화건설 이근포 사장을 비롯한 임원, 팀장 등 임직원 120여명이 청계산 이수봉에서 경영목표 달성 및 무재해를 결의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건설

한화건설 '경영목표달성·무재해 결의' 산행

한화건설이 지난 주말 창립기념일을 맞아 경영목표 달성 및 무재해 결의 산행을 실시했다.

청계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화건설 이근포 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팀장 등 120여명이 참여했으며, 청계산 이수봉에 오른 한화건설 임직원들은 경영목표 달성 및 무재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근포 사장은 산행에 참여한 임원·팀장들과 격의없는 소통을 나누고 노고를 격려하면서 "임직원 모두가 전사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경영목표 및 무재해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영관 기자 kwan@

리디아 고 '영향력 있는 10대 25인'

美 타임지 선정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사진)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올해의 '영향력 있는 10대 25인'으로 꼽혔다.

13일(현지시간) 타임지는 리디아 고가 포함된 영향력 있는 10대 25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리디아 고는 한국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타임이 선정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은 리디아 고를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추천하며 "리이다 고는 태어난 한국과 입양돼 자란 뉴질랜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프로에 입문한 리디아 고는 LPGA 투어 역대 최연소 챔피언과 LPGA 투어 아마추어 선수 최초 대회 2연패 등의 성적을 거두며 현재 세계 랭킹 3위를 기록 중이다. 또 LPGA 역사상 최연소 갑부 반열에도 올랐다.

리디아 고 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두 딸 말리아(16)와 사샤(13), 그리고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프자이(17·여)도 영향력 있는 10대 25인으로 선정됐다. 또 홍콩 반중 시위를 이끄는 중·고교 단체 학민사조 위원장인 조슈아 웡(18), 미국 유명 아이돌 오스틴 마혼(17), 미국 리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68회 만에 첫 여자 승리투수인 필라델피아팀의 우완투수 모다 데이비스(13) 등이 영향력 있는 10대로 뽑혔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포스코건설은 지난 10일 몽골 울란바토르 항울구에 위치한 75번 학교(초중고 통합)에 최신 컴퓨터와 빔프로젝트를 갖춘 멀티미디어 장비를 기증했다. 사진제공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몽골에 멀티미디어 장비 기증

75번 학교에 컴퓨터·빔 프로젝트 등

포스코건설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우림복지재단과 함께 몽골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포스코건설과 한류재단은 지난 10일 몽골 울란바토르 항울구에 위치한 75번 학교(초중고 통합)에 최신 컴퓨터와 빔프로젝트를 갖춘 멀티미디어 장비를 기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건설이 사업진출 대상 국가인 몽골에서 현지인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한국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동반자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스코건설은 멀티미디어 장비를 기증하는 한편 이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몽골 문화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75번 학교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통해 몽골 전통춤을 비롯해 한국의 부채춤, 아리랑 노래 공연 등을 선보였다. 또한 이날 우리나라 김밥을 1100여명의 전교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청중석 야유에 연설 중단한 힐러리



미국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사진〉 전 국무장관이 연설 도중 청중석에 있던 한 남성으로부터 야유를 받고 연설을 일시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2일(현지시간) 클린턴 전 장관은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 소아과학회(AAP) 주최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의 뇌 발달'을 주제로 연설했다. 그의 연설 도중 중년의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확성기에 대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냈다. 행사장 보안요원이 즉각 해당 남성을 끌어냈으나 당황한 클린턴 전 장관은 연설을 잠시 중단했다. 이후 클린턴 전 장관은 "어린 시절에 중요한 뇌 발달 단계를 놓친 사람들이 가끔 있다"며 연설 내용과 연결된 농담으로 어수선한 장내 분위기를 정리했다.

이날 연설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어린이 뇌 발달 촉진을 위한 클린턴 재단과 소아과학회의 공동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했다. 그는 "부모가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의 신경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박인비가 13일 경기 파주의 서원밸리 골프장에서 자신의 스윙코치 남기협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뉴시스

박인비 "신행 미루고 시즌 전념"

13일 파주 서월밸리서 스윙코치 남기협씨와 백년가약

'골프여제'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자신의 스윙코치 남기협(33)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박인비는 13일 오후 경기 파주의 서월밸리 골프장 야외 웨딩홀에서 신랑 남기협씨와 비공개 결혼식을 진행했다.

방송인 김제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혼식에는 양가 가족과 친지·지인들이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특히 함께 웨딩 화보를 꾸몄던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 최나연(27·SK텔레콤), 김인경(26·하나금융그룹), 청야니(25·대만), 수잔 페테르센(33·노르웨이) 등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활약 유명 프로골퍼들이 하객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박인비가 팬이라고 밝힌 정동하는 축가를 불렀다.

박인비는 "결혼이 인생의 전환점이라 생각한다. 아직까지 실감이 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줘서 기쁘다. 지금까지 신랑을 코치라고 불렀는데 이제 내 남편이라고 밝힐 수 있게 됐다"며 결혼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박인비는 신혼여행은 잠시 미루고 막바지 시즌에 전념할 계획이다. 박인비는 16일부터 나흘간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열리는 LPGA투어 하나외환 챔피언십에 출전, 시즌 3승에 도전한다.

오상민 기자 golf5@

세계은행 상임이사에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이 은성수〈사진〉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세계은행그룹 상임이사로 선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3일 밝혔다. 은 이사의 임기는 내달부터 오는 2016년 10월까지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을 자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수영 기재부 국제기구과장은 "은 차관보가 세계은행그룹의 상임이사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세계은행그룹의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카터 前 대통령, 손자 위해 40년만에 선거 유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왼쪽)이 12일(현지시간) 미 조지아 주 올버니의 시온산침례교회에서 주지사 후보로 나선 손자 제이슨 카터를 안아주고 있다. AP뉴시스

올해 90세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 주지사 후보로 나선 손자를 위해 40여년 만에 선거 유세에 나서 지지 연설을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남부 올버니의 시온산침례교회에서 열린 조지아 주지사 선거 유세 행사에서 손자 제이슨 카터(39)와 함께 연설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애틀랜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제이슨은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서 현역인 네이선 딜 주지사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나선 것은 40여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제이슨이 조지아 주지사에 당선되면 유력한 차세대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할아버지 카터 전 대통령도 이름없는 지역 정치인에서 조지아 주지사를 거쳐 197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재산세제과장 조만희 △국유재산정책과장 최호천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승진 △공무원노사협력관 유정인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고위공무원 전보 △감사관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 고규창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정책국장 파견 강성조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노정석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신동렬 ◇과장급 전보 △국세청 감찰담당관 류덕환

◆통계청 ◇과장급 전보 △품질관리과장 김경용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장 김신호 ◇서기관 전보 △동북지방통계청 춘천사무소장 홍성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정책홍보팀장 김성조

◆서울신문 △경영기획실장(기획부장 겸임) 이상훈

◆매일일보 △대표이사 사장 나정영 △부사장 겸 편집국장 이상준 △고문 김병호 △마케팅국장 최성필

부음

▲조수철(전 KBS 예산국장)·성천(을지대 교양학부 교수)씨 모친상 = 12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 새고창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9시, 063-563-1001, 010-9120-0199, 010-5266-0730

▲한선교(새누리당 경기 용인병 국회의원)씨 모친상 = 13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30분, 02-3410-6917

▲이희범(새누리당 충남도당 조직부장)씨 모친상 = 13일 오전 6시 40분, 충남 공주시 신관동 공주장례식장 특1빈소, 발인 15일 오전, 041-854-1122

CEO 칼럼 이 홍 구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SW 글로벌 경쟁력은 '현지화'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의 2013년 수출액은 약 6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액의 0.3%, 세계 순위 25위에 그쳤다. 필리핀(22억 달러, 14위), 말레이시아(20억 달러, 18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SW 기업들이 SW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 SW 제품의 현지화 실패를 꼽고 있다.

필자는 오랫동안 여러 다국적 IT기업을 거치면서 본사로부터 한국 내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 본사의 방식이 아닌 한국 여건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조건으로 필자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생산부터 A/S까지 모든 사업정책을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게 바꿔 놓았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고 안정적 시장을 확보하며 성공을 이어갔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제품과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현지화와 실행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경험했던 일례다.

SW 제품은 일반 상품의 수출과는 달리 현지 언어, 문화, IT 사용환경 등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약 6억 달러로 세계 25위에 그쳤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6월 'ICT·SW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출범식'을 갖고 SW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과 맞춰 구동돼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현지화에 따라 수출의 성패가 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국내 SW 기업들이 훌륭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고도 현지화의 벽에 부딪혀 해외진출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금과 인력의 선행적 투자가 있어야 후행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비즈니스에 있어, 결과에 대한 보장 없이 해외시장 진출을 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업들의 자구적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중소 규모 기업이 많은 국내 SW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이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다.

정부는 국내 SW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중·소 SW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정보화 컨설팅 지원' 및 '수출형 소프트웨어 제품화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ICT·SW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를 개소하는 등 SW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글과컴퓨터도 최근 중소기업청이 진행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돼 향후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행보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올해도 정부는 'SW 중심 사회'를 선언하고 SW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팔을 걷어붙이는 등 정부의 전격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국내 SW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더욱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국내 SW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고 과감한 실행력을 통해 해외시장을 뚫는다면, 세계에서 한국 SW가 위상을 떨칠 날도 머지않았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병준의 말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삼척시 주민투표, 중앙정부 딴소리 말라

투표율 67.94%, 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4만2488명 중 2만8867명이 투표했다. 그리고 투표자의 84.97%가 반대를 표시했다. 지난 9일 삼척시에서 있었던 원전 유치 관련 주민투표 이야기이다.

놀랍다. 높은 투표율과 높은 반대표 비율도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주민들이 관리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놀랍다. 720명의 자원봉사자가 선거를 관리했고 그 바람에 돈도 1억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

통상 드는 비용의 4분의 1, 그것도 일부 외부에서 온 찬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민들이 부담했다.

대단하다. 원전 문제가 대단한지, 아니면 주민들이 대단한지, 아무튼 대단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원전 유치는 국가 사무라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어쩌고 하고 있다.

맞다. 현행법상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원전 건설은 명백한 국가 사무이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그 결과로 중앙정부를 구속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예외가 있기는 하다. 행정 각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투표 결과가 중앙정부를 구속하지 못한다. 투표 그 자체가 단지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삼척시의 주민투표는 아무것도 아니다. 법에 의해 실시된 것도 아니고 그 결과의 법적 구속력도 없다. 그래서 시장이 실시를 공표하지도, 실시의 주체가 되지도 못했다. 법에 따라 하는 투표였다면 그 관리도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하지만 이 또한 그렇지 않았다. 주민들이 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중앙정부가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나. 하다못해 주민들의 집합적인 의견이니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나. 꼭 그렇게 국가 사무 운운하며 방어적이다 못해 궁색한 모습을 보여야 하나. 언제는 국가 사무면 뭐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나.

새삼 2003년 주민투표법 제정을 논의할 당시의 상황이 떠오른다.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이 1994년, 그러니까 10년간 이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만큼 머리 아픈 문제였다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자 또다시 야단이었다.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절차로 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중앙과 지방의 입장이 다르고,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의 입장이 달랐다. 그 사이에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끼어들기도 했다.

정말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없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결국 오세훈 시장을 물러나게 한 투표확정 요건, 즉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투표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 많은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 사무에 대한 주민투표 여부 역시 그중 하나였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 구속력을 갖게 하느냐 마느냐. 결국 지금의 규정 그대로 보수적인 결정이 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구하기 위해 요구해 올 때만 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이기주의적 성향의 주민투표가 난무할까 봐, 또 그 결과 주민투표와 주민참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화될까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자신은 없다. 즉 다 풀어도 괜찮을 것이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이번의 경우처럼 충분히 이해되는 일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금과 같이 방어적이고 궁색한 태도를 보인다면 주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이다.

법의 취지를 잘 살펴봐 주었으면 한다. 법에 입각한 주민투표가 아니면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법은 가려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경직된 태도를 보인다면 그야말로 반법률적 태도가 된다.

잘 생각해 잘 받아들이기를 권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회로도 삼아주었으면 한다. 법은 그러라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온라인 와글와글

이케아 편법도 문제지만, 국회 규제도 '꼼수'



○…한국 진출을 앞둔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가 편법을 동원해 거대 쇼핑몰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케아가 부지 임대 과정의 편법과 지역 쇼핑몰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은 "어떻게든 이케아 막으려고 난리가 났네", "언제부터 그렇게 중소 상권 생각을 해 주셨나?", "이케아 때문에 가격 거품 빠질까 봐 두려운 국내 가구 독점업체들을 위해서겠지", "국내 기업 꼼수가 더 많아", "실제로 저 지역 가보면 허허벌판이라 동네 상권이랑은 아무 상관 없음", "자국 기업들이 법을 똥으로 보는데 외국 기업이 참 잘도 지키겠다"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맛집 후기'로 유명한 블로그의 실태를 한 시사프로그램이 파헤쳤다. 돈을 받고 가 보지도 않은 음식점 후기를 만들어 내거나 이른바 '검색비법'을 통해 자신의 후기를 포털사이트 상위에 노출시키는 등 다양한 편법들이 드러났다. 네티즌은 "이건 뭐 '블로거'야, '블로거지'야?", "맛집 블로그가 진짜 맛있어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방문자 수 늘리려고 올리려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음", "돈 받고 써주는 블로거지들의 한심한 놀이", "저런 데 가 보면 사람만 많고 100% 실망하고 나온다", "그냥 집 앞 순댓국밥집이 짱이다", "맛집 블로그도 문제지만 TV에서 나오는 맛집들도 문제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김은총 기자 kec@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황교안 "카카오톡 감청… 표현상 오해" 공식사과
2. 대학생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 '정치인'
3. 경의선 강매역 재개통, 각종 편의시설 갖춰
4.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판매, 소비자 분노
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조정이혼' 선택한 이유는?

오늘의 배국남닷컴 www.baekn.com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 첫 주연 맡은 한선화



배국남닷컴은 13일 한선화를 인터뷰했다. MBC 새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을 통해 드라마 첫 주연을 맡는다. 한선화는 "실제 제 모습과 비슷한 캐릭터를 맡아서 다행이다. 제게 버거운 역할로 첫 주연을 맡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부담스러웠을 텐데 장미 캐릭터가 2~3년 전 제 모습 같다"고 밝혔다.

한선화는 극중 역할인 백장미에 대해 "저는 철없는 공주과 마마걸이다. 많이 사랑스럽지만 시청자가 보기에 '왜 저렇게 철이 없을까'란 비난도 많이 받을 것 같은 캐릭터다. 순수하면서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철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22세에 순수함을 잃지 않고 차돌(이장우) 오빠라면 엄마, 아빠도 제쳐두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선화는 파트너 호흡을 맞추는 이장우에 대해 "MBC '우리 결혼했어요' 속 이장우를 보면서 '내게도 저런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이전부터 이장우를 무척 좋아했다. 그런데 오빠가 안 믿는다. 테스트 촬영에서 얼굴을 맞대는 신이 있었는데 너무 긴장돼 얼굴이 빨개졌다"고 털어놨다.

한선화는 '장미빛 연인들'이 시청률 30%를 훌쩍 넘기며 화제 속에 종영한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의 후속작인 점에 대한 부담감과 각오도 내비쳤다. 한선화는 "사실 걱정은 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도 많았다. 그러나 이미 촬영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에너지와 대본 등 '장미빛 연인들'만의 매력이 있고, 이를 믿는다"고 전했다. 18일 첫 방송되는 '장미빛 연인들'은 어린 나이에 크게 한 번 넘어졌지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인생에 대한 해답과 행복을 찾아가는 주인공과 그 가족을 통해 희망을 그린 드라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www.rynkorea.com

RYN 대한체육회 공식 파트너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워킹 No.1 린

WORLD BEST NO.1

· 해외 20여개 국가로 수출
· 대통령 표창 수상
· 미국 오바마 대통령 표창 수상
· 대한체육회 / 대한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사 선정
·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미국 FDA 1등급 의료기 등록(국내 신발업계 최초)
· 유럽 CE 의료기기 인증(국내 기능성 신발 최초)
· 이탈리아 AC STUDIO와 디자인 협약

(주)RYN코리아는 인류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는 기업정신으로 기능성 워킹화에서부터
스포츠 패션까지 세계최고의 제품만을 고집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 기업입니다.

뉴욕 인사이드

사이버검열 시대, 트위터의 대응



민 태 성
뉴욕특파원

미국의 헌법은 세계에서 수정 없이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꼽힌다.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1700년대 말 헌법을 제정한 이후 전문을 수정한 적이 없다. 다만, 시대에 맞게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수정헌법이라 한다. 수정헌법에서 가장 유명한 제1조인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평화적인 집회 권리 및 불만 사항을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모든 국민과 단체는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개인과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수정헌법 제1조인 셈이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표현 자유국'으로 만든 수정헌법 제1조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기도 하다. 퓰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저널리스트인 앤서니 루이스는 저서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에서 수정헌법 1조를 해석하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시대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도 권력의 남용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난으로 이어진다. 일례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은 미국 정부가 자국 국민과 우방국에 저지른 광범위한 사찰 실태를 까발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주요 우방의 정상들은 미국 정부의 도청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태 수습을 위해 진땀을 뺐다.

미국의 사찰 이슈는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의 세계 최대 마이크로블로깅서비스 트위터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정보 제공 요구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는 소송에서 미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가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실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의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최근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사태는 주요 외신에도 관심거리다. BBC는 최근 '왜 한국인들은 최대 소셜네트워크에서 탈출하는가(Why South Koreans are fleeing the country's biggest social network)'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BBC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해상 참사로 기록된 세월호 사태 이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졌고, 정부는 5000만 국민 중 3500만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는 사이버상의 망명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일주일 동안 150만명의 사용자가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BBC는 설명했다.

정부의 검열 논란에 대한 다음카카오의 대응은 세계 최고라는 한국 IT산업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기로 하면서 사법당국과 다음카카오의 충돌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앞서 회사 측의 대응은 안일했다.

정당한 법 집행에는 협조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나"는 것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입장이었다.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는 국가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기업을 탓하기보다는,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를 비판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일리는 있다. 이해도 된다. 그러나 이는 카카오톡을 국민 메신저로 키워준 이용자들을 달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불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모든 사회에는 공포가 존재한다. 특히 정치인들에 의해 조작된 공포는 가장 무섭고, 파괴력도 세다. 이는 때로는 혁명이라는 말로 꾸며지기도 하고, 신념이라는 단어로 미화되기도 한다.

이런 공포를 깨뜨린 것은 용기 있는 시민과 법조인 그리고 저널리스트들이었다. 트위터가 보여주듯이,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기업도 자유 수호를 위해 일어설 수 있다. 문제는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다.

자유를 원한다면, 용기는 필수다. 비겁한 자는 결국 지배당한다.

tsmin@

박태진의 천만의 말씀

SH공사 사장 공모에 쏠린 눈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 파트너 찾기가 시작됐다.

박 시장의 민선 6기 체제가 향후 4년간의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있어 핵심인사 중 하나가 SH공사 사장이다. 현재 이 자리는 공석이다. 이종수 전 사장이 지난 8월 말 돌연 사표를 냈다.

SH공사는 최근 사장 공모를 시작했다. SH공사의 수장은 1천만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사의 부채 감면 등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전 사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물러난다고 밝혔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가 사의 표명 직전까지 현장을 찾아다니며 업무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또 그는 올 봄 간담회에서 연말까지 부채를 7조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공사는 현재 극심한 부채난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 10월 13조578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4월에는 10조3345억원까지 줄었다. 이로써 그의 사퇴는 부채 감축 압박 또는 측근 인사 배치 등의 원인이 작용했다는 설이 나온 상태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2월 부채감축 방안을 놓고 박 시장과 대립한 끝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급하게 땅을 팔 경우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처분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이 전 사장은 맞섰다. 당시 사퇴 건은 박 시장의 설득으로 없었던 일이 됐다.

박 시장의 민선 6기 체제가 출범한 지 4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지난 5기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SH공사 부채 감축으로 곤욕을 치른 박 시장이 이번 체제에서는 어떤 파트너와 함께 이 난국을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과 전세물량 부족 등으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박 시장이 향후 4년간의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가 될 SH공사 사장 선임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박 시장은 최근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SH공사 사장 선정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공사는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하고 짓는 시대의 사장이 아닌 우리시대 화두인 도시재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임대주택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확고한 신념도 보여줬다. 박 시장은 아울러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저소득층 위한 주택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활력을 경쟁력으로 키우겠다는 비전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번 시정에서 4개 분야의 큰 계획 중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 주거고민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 6만호와 민관 협력으로 서울형 민간임대 2만호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박 시장 측근 인사가 그 자리를 꿰차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임대주택사업과 도시재생을 아우르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박 시장의 말이 실행에 옮겨지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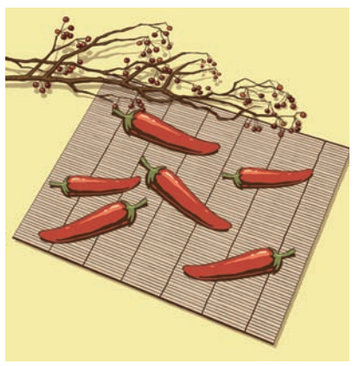
부동산시장부 기자 tjpippo@

객석

태양초



정 한 효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 기획관리실 차장



고추라고
다 붉은 게 아니며
붉다고 다 태양초가 아니다

뙤약볕 아래 맨 몸으로 살았다고
햇살만 담은 게 아니다

어미 배를 가른 산고(產苦)의 아픔
탯줄 같은 꼭지로
빗물만 머금은 게 아니다

농부의 손때 묻어 반질거리는 것이지
안개 자욱한 고추밭에서
실바람과 노닥거린 것만은 아니다

땅벌 침 몇 번 맞고
뭉게구름 무심히 지났다고
야속해서 매운 게 아니다

한 점 외로운 고추씨
무서리 올 때까지 금줄 주렁주렁 매단다고
혼자 잘 먹고 살자는 게 아니다

고추라고
다 붉은 게 아니며
붉다고 다 태양초가 아니다

잇몸에 낀 고춧가루 보고
얼굴 붉어지는
그대가
태양초

기자의 눈

탁상행정의 진수 '장애인 연금보험'



이 재 현
금융시장부/nfs0118@

결국 우려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외계층을 위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를 추진했지만 결국 시장이 예고한 것처럼 초라한 성적만 남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4월 중으로 보험사들에게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라고 지시했지만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했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6배나 높아 리스크가 큰 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이 덜 됐고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정부의 주문에 따라 만들어진 이들 상품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험사들에게 출시를 재촉했고 지난 5월 장애인 연금보험이 나왔다.

하지만 장애인 연금보험의 판매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NH농협생명과 KDB생명 두 생보사가 출시한 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매달 100~200여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감소하는 추세다.

장애인 전용연금보험은 MB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갈 수 있다는 소득의 역전성 때문에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제외된 상황에서 지난 6년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았다.

이처럼 6년간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상품이 나왔다. 업계의 지적은 무시한 채 말이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험상품을 출시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정확한 위험요율 통계 데이터를 확보한 뒤 계획해야 한다. 탁상행정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던 '녹색자동차보험', '곰두리보험', '자전거보험' 등의 원인을 이제는 금융당국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www.hainaim.com 전화 02-326-1600 팩스 02-326-1624 채냄

이 책 앞에서 더 이상
『논어』를 논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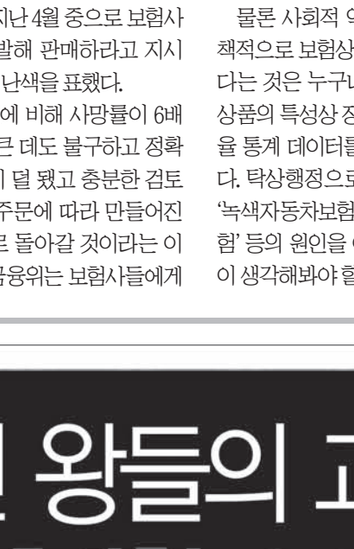
20개의 편(篇)과 498개의 장(章)이
거미줄처럼 복합적인 『논어』의 세계

논어로 논어를 풀다

이한우 | 신국판 | 1,408쪽 | 양장본 | 값 58,000원

조선 왕들의 교과서,
『대학』으로
준비된 리더가 되라!

어지러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힘, 동양 고전에서 찾는다!



논어로 대학을 풀다

나를 성찰하고 갈고닦는 데
진정한 길이 있다!



33장의 짧은 구성 속에 담긴 유교 경전의 진수
『중용』의 핵심을 꿰뚫어 본질에 접근한다

논어로 중용을 풀다

이한우 | 신국판 | 424쪽 | 양장본 | 값 28,000원

스스로 내면을 닦고,
나아가 사회를 바로잡는다!

주희의 해석에 가려진 성인(聖人)과 현인(賢人)의 참 언명
『논어』 원전으로 돌아가 개념의 맥락과 의미를 밝힌다
학술 저널리스트 이한우가 핵심을 꿰뚫은 『대학』 풀이의 결정판



논어로 대학을 풀다

이한우 | 신국판 | 304쪽 | 양장본 | 값 25,000원

【이한우의 사서삼경】 시리즈

〈이한우의 군주열전〉으로 조선 왕의 리더십을 분석한 저자 이한우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라보는 혜안이 담긴 책으로 〈이한우의 사서삼경〉 시리즈를 제안한다. 앞으로 『맹자』 『시경』 『서경』 『주역』을 꼼꼼하게 분석한 해설을 담아 출간할 예정이다.

【이한우의 군주열전】

『조선왕조실록』 속 흥미진진한 사료들을 전방위로 추적하고, 저널리스트의 감각으로 그 행간의 의미를 포착한 통시적 역사 읽기의 새로운 시도!

스타, 스타를 말하다 주원이 말하는 주원

"완벽한 음악 천재 되려 '헤어·패션' 신경 좀 썼죠"

KBS '내일도 칸타빌레' 음악학도
지금까지 역 중 가장 멋진 캐릭터
日 원작과 다른 새로운 해석·창조

안녕하세요. 배우 주원입니다. 이번에는 음악학도로 새로운 연기 도전을 해요. KBS 2TV 월화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에서 차유진 역을 맡았어요.

극 중 차유진은 세계적인 지휘자를 꿈꾸는 피아노과 3학년으로 눈부신 외모, 탁월한 음악적 재능,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아버지의 후광과 재력까지 그야말로 안 갖춘 게 없는 완벽한 남자죠. 그간 제가 했던 역할 중에 제일 멋있는 캐릭터예요. 캐릭터를 위해 머리도 웨이브를 넣고, 살도 많이 뺐어요. 연기하면서 헤어와 패션 스타일에 신경쓴 게 처음이니까요. 연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도 많이 신경 썼어요. 몸무게를 약 6kg가량 감량했는데 해독주스의 힘이 컸죠. 든든함과 동시에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또 걷기 운동을 많이 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게 재미있었어요. 다 가리고 있으니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직업 특성상 가릴 수밖에 없지만, 걷기 운동은 효과 최고인 것 같아요.

약 6개월 전부터 지휘와 바이올린을 배웠죠. 그래도 음악을 좋아해서 재미있게 연습했어요. 촬영 때 악기잡는 신이 있으면 설레요. 오케스트라 공연을 볼 때 마음가짐도 달라졌죠. 왜 그동안 지휘자를 안 봤을까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음악을 전달하려는 행동이 하나 하나 느껴졌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큰 기운을 받아요. 마에스트로처럼 훌륭하게 지휘할 수 없지만 열정적으로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배우 주원이 지난 8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KBS 새 월화극 '내일도 칸타빌레' 제작발표회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원작 '노다메 칸타빌레'와 '내일도 칸타빌레'의 차별점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일본 원작은 캐릭터가 가진 색깔로 재미를 주지만, 우리는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어 그 속에 배우들이 물들 수 있게 해요. 그렇다 보니 코믹연기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더라고요.

우리는 일본 원작 '노다메 칸타빌레'를 똑같이 재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으로 옮겨와서 한국 시청자가 보게 되고, 다른 스태프가 촬영하죠. 오히려 똑같이 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같은 것을 새로운 해석과 창조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밤새 열심히 찍고 있어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김민정 기자 mj_kim@



유반장·2인자·정과장·상꼬맹이·형돈이·돌아이

"시청자가 허락하는 날까지"

무한도전 '400회' 금자탑
사회적 이슈·다양한 형식 실험
리얼버라이어티 경계 뛰어넘어
김태호 PD "1등 공신은 '시청자'
마지막 온다면 박수치며 내릴 것"

한국 예능사를 새롭게 쓰며 리얼버라이어티 장르를 개척 발전시킨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400회를 맞는다. 2006년 5월 6일 첫 방송을 시작한 '무한도전'은 18일 400회 방송을 내보낸다. 특정한 형식없이 유재석·박명수 등 출연 멤버들이 특정한 미션이나 주제, 장단기 프로젝트에 도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은 리얼버라이어티 예능 붐을 조성했고,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실험으로 한국 예능사의 기념비적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10일 서울 상암동 MBC미디어센터에서는 '무한도전' 400회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무한도전'을 기획하고 첫회부터 연출을 담당한 김태호 PD는 400회까지 오는 동안 가장 큰 공로를 세운 멤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가장 큰 공로자는 시청자"라고 말했다. 시청자들은 직간접적으로 '무한도전'에 참여해 프로그램의 주체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을뿐만 아니라 굳건한 팬덤으로 시청률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400회를 맞는 멤버들의 소감도 남달랐다. 유재석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재미다. 웃음을 못 드려 많이 혼난 적도 있지만 비판받을 것은 받고, 잘 하면 칭찬도 받으면서 열심히 하겠다"며 "'무한도전' 시작할 때 박명수가 36살이었다. 나이와는 관련 없다. 시청자가 허락한 그날까지 한주 한주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에게 칭찬받고 싶다"고 말했다. 유재석은 또 400회까지 오는 동안 숱하게 맞았던 '무한도전'의 위기에 대해 "진행을 맡은 입장에서 개인적인 일이나 다른 일로 논란이 생겼을 때 가장 고민되고 힘들다"며 "단 한번도 '무한도전'을 후회한 적 없고, 앞으로 그만둘 생각도 없다. 정말 오래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태호 PD 역시 연출자의 입장에서 '무한도전' 400회를 맞는 소감과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김태호 PD는 "'무한도전'의 대주주는 시청자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 큰 변화와 큰 결정은 시청자의 몫이다. 주어진 과제 하나 하나를 할 뿐이다"고 말했다. '무한도전'은 400회가 방송되는 동안 폭발적인 인기도 얻었고 숱한 위기론도 있었다. 20~30%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다 근래 들어 한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무한도전'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매회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전개되는 '무한도전'의 강점은 시청자에게 오랜 방송에도 신선함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레슬링, 조정 등 장기 대형 프로젝트에서부터 감동과 의미를 주는 다양한 아이템으로 진행해 수많은 시청자에게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전달했다.

'무한도전' 인기의 또 다른 부분은 멤버들의 특성을 캐릭화한 것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멤버들은 자신들의 캐릭터에 대한 입장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정준하는 마음에 드는 캐릭터로 '정과장'을 언급하고, 그 이유로 "순수해 보여서 좋다"고 답했다. 이어 하하는 "상꼬맹이다. 예전에는 그렇게 싫었던 별명인데 생각해 보니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정형돈은 "그냥 '형돈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좋았다"고 밝혔고, 노홍철은 "간절함을 담고 있고, 운신의 폭도 넓어서 사랑한다"며 '돌아이'라고 말했다. 박명수는 "워낙 많다. 2인자, 거성, 악마의 아들, 방배동 살쾡이 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2인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박명수에 이어 유재석은 '유반장'을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로 꼽았다.

김태호 PD는 "'무한도전'이 만약 막을 내린다면 신파가 아닌 축제가 될 것이다. 박수 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막을 내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sun@



인기 웹툰, 이제 안방극장서 만난다

윤태호 원작 '미생' 17일 tvN서 첫 방송
SBS '하이드…'·OCN '닥터…' 등 줄이어

온라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제작이 줄을 잇고 있다. 용이한 접근성, 공감이 쉬운 소재와 재치 등으로 소구하며 세대층을 넓혀온 웹툰 작품이 드라마의 원작으로 각광받고 있다. 17일 첫 방송을 앞둔 tvN 새 금토드라마 '미생'이 대표적 예다. 만화작가 윤태호는 웹툰 '미생'을 통해 냉혹한 현실 속 직장인의 삶과 애환을 바둑에 빗대어 호평을 이끈 바 있다. 이에 임시완, 이성민, 강소라, 강하늘 등 원작 속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두드러진 개성으로 무장한 배우들이 캐스팅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인기 한류스타 현빈이 군 전역 후 선택한 드라마 복귀작 역시 웹툰 원작이다. SBS '시크릿 가든' 이후 현빈이 TV브라운관을 통해 1인 2역의 존재감을 뽐낼 '하이드 지킬, 나'는 만화작가 이충호의 웹툰 '지킬박사는 하이드씨'를 원작으로 했다. 한 남자의 전혀 다른 두 인격과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의 삼각로맨스를 그릴 전망이다.

송창의가 타이틀롤로 캐스팅을 확정 지은 뒤, 정은채가 합류한 OCN 드라마 '닥터 프로스트'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 만화작가 이종범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수사극이다.

KBS 2TV '풀하우스', '그들이 사는 세상'으로 이름을 알린 표민수 PD는 로맨틱 코미디 기반의 웹툰을 새 연출작으로 점찍었다. 만화작가 유현숙의 '호구의 사랑'은 7년째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호구가 정체 불명의 아이를 맡게 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기다. 내년 케이블 채널 tvN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직장인의 애환을 바둑에 빗댄 웹툰 원작의 tvN 드라마 '미생'. 사진제공 CJ E&M

이처럼 웹툰 원작 드라마는 검증된 설득력의 시나리오, 수용층의 지지기반 등을 요인으로 제작이 선호되고 있다. '미생'의 김원석 PD는 "웹툰 원작을 근거로 들어 회사를 설득하면 훨씬 용이했다"고 기획 당시 원작의 유용성을 내비쳤다. 반면 김 PD는 드라마 각색에 대한 연출자로서 위험 부담을 표출했다. 김원석 PD는 "완성된 스토리 라인을 갖춘 만화를 카메라에 옮기는 연출은 무척 고심스러운 일이다"라고 토로했다. 김 PD는 "삼국시대 사극보다 실록이 남아 있는 조선시대 사극 연출이 훨씬 더 어려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원작 웹툰에서 빠져 나갈 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마켓히어로 / 비에스이홀딩스 ▌21면

強달러… 엔低… 궁지 몰린 '세종대왕'

Cover Story

'환율공습' 탈출구는?

강(强)달러, 엔저(低) 등 환율의 공습이 거세지고 있다. 환율 변수로 인한 주식·채권·외환·상품의 가격 변동성도 한층 심화되고 있다. 달러화 강세 원인을 놓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경기회복세 반영이라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강세 기조 지속에는 이견이 없다. 일본중앙은행(BOJ)이 통화완화 정책을 고수하며 국가간 대립 양상이 소리 없는 환율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달러화 강세… 국내 증시 '날벼락'
외인 자금이탈 본격화 주가 하락
美 연준 금리인상 시점 이목 집중

엔화 약세… 대형 수출주 '된서리'
한은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감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투자자금도 환율 변수에 따라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달러화에 대한 매수세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채권에 대한 투자도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달러화 강세가 진행되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본격화고 있다. 수출 대형주들은 그동안 지속됐던 원화 강세 기조의 반전으로 채산성 악화에 대한 부담은 덜어냈지만 달러화 강세를 반색할 여유도 없이 엔화 약세로 인한 제 2의 환율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다.

8월 말까지만 해도 달러화 약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원화절상 압력이 지속되며 1000원선을 위협하는 등 세 자릿수 진입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반 만에 분위기가 역전됐다. 과거에도 환율 변수가 부각된 시기가 있었다. 지난 2002~04년 경기가 반등하면서 선진국-신흥국 간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와 국제 자본이동 증가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또한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증폭되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디레버리징이 나타나기도 했다.

달러화 강세로 외환시장과 상품시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요국 통화 대부분이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한층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달 초 달러인덱스(DXY)는 86.75까지 급등하며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로화는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달러화가 2010년 이후 초강세를 보이면서 금, 유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동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 금선물 가격은 온스당 1200달러가 무너지기도 했고,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배럴당 85달러선까지 내려갔다.

현재의 달러화 강세는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에 기인한 펀더멘털 우려와 미국 양적완화(QE) 종료 이후 통화정책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달러화 강세 배경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완화 조치와 유럽 경제 불확실성 심화, 일본 경제 부진에 따른 BOJ의 추가 통화완화 기대감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연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2008년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QE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50억달러의 테이퍼링(Tapering)을 끝으로 QE3는 종료될 예정이다. QE 종료 이후 금리인상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깔려 있다. 그동안 연준에서는 꾸준히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긴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다만 시점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매크로 지표 호조세가 지속되며 비교적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금리인상 시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내년 3분기 이후로 예상되던 금리인상 시점이 최근 내년 2분기로 앞당겨지며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가 신흥국 증시 약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는 과거에도 달러화 강세 전환의 계기가 됐다. 지난해 5월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QE 축소 입장을 밝히자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 주가 약세, 금리 상승을 야기했던 전례도 있다.

미국 금리 상승은 그 자체만으로도 달러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계 자금의 신흥국 투자 유인을 약화시킨다.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의 이탈 현상이 전개된다면, 신흥국 통화 약세까지 더해져 달러화 강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통화 약세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금리 인하(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와 증권매입 프로그램(SMP)에 대한 불태화 중단, 선별적 장기자금공급조작(TLTRO) 등을 발표했다. ECB가 TLTRO에 이어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커버드본드 매입을 시작할 경우, 연준(Fed)과의 상대적 발권력 변화 측면에서 유로화는 추가적인 약세가 예상된다.

엔화 약세도 재개되고 있다. 속도의 문제일 뿐 기조적 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며 내부적인 엔화 약세 압력도 높다. BOJ의 추가 통화완화 정책 수준과 미국의 금리 상승폭에 따라 엔달러 환율은 추가로 오를 전망이다. 내년 연말에는 115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달러 환율은 오버슈팅 상태지만 미국 금리 상승세가 전개된다면 미·일 간 금리 차가 확대되며 엔 캐리 트레이드 유인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처럼 나홀로 원화 강세 현상은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며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 원달러 환율은 반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2기 경제팀이 꾸려진 이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와 자산가격 상승을 꾀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를 언급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를 높이고 있고 내외 금리차 축소도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맞물리며 환율 변수에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펀더멘털 측면을 비춰봤을 때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금리인상의 신호탄을 쏠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화 강세의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장청 기자 jcha@

커버스토리 18·19·2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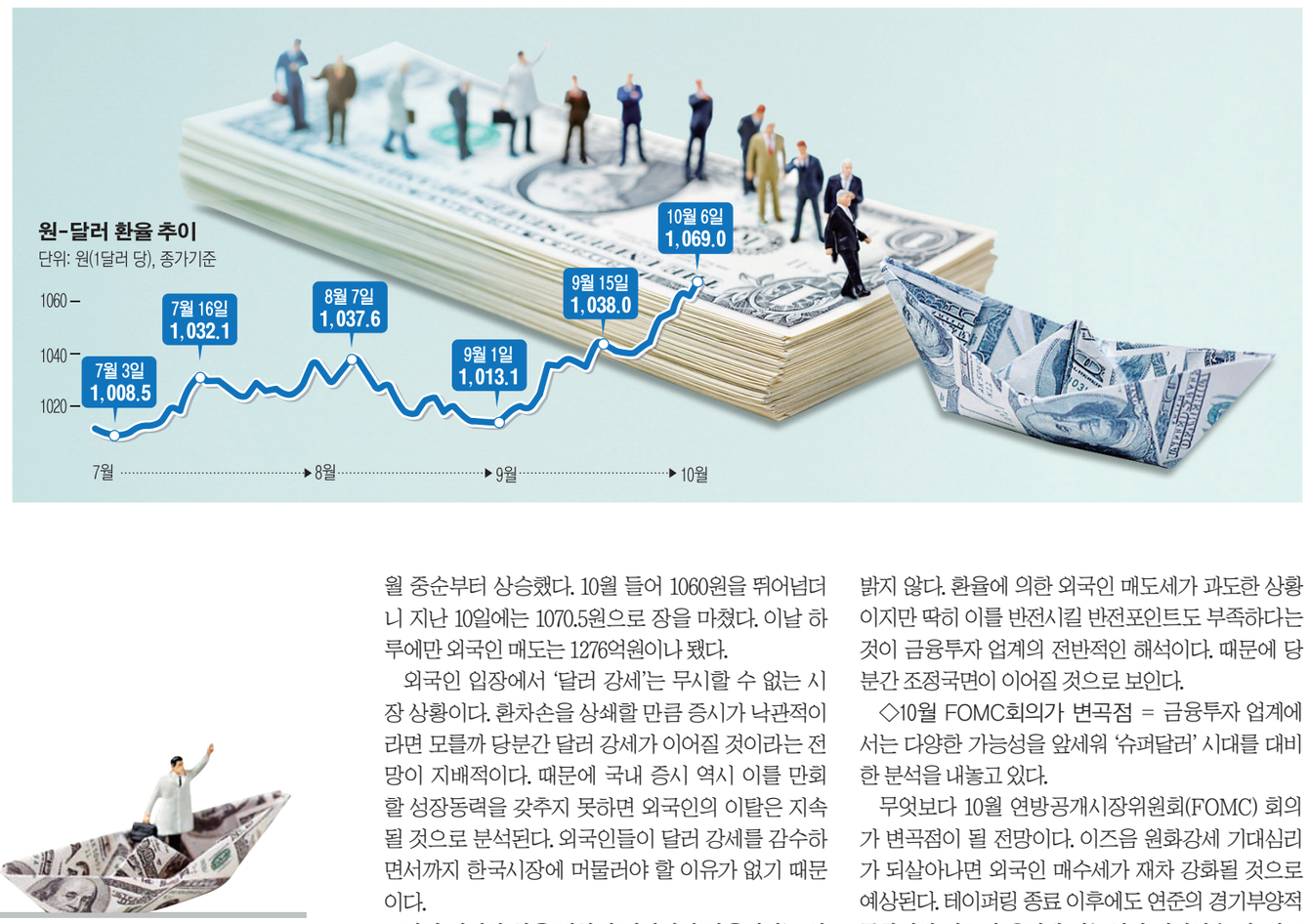


'엑소더스 코리아' 이달에만 1조2250억원 빠져나가

〈1~13일, 7거래일〉

한국 등지는 외국인 투자자

10일 환율 1070.5원까지 올라… 하루에만 1276억 매도공세
"증시, 환차손 상쇄할 매력 없어"… 28일 FOMC회의가 변곡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등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졌다.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BUY KOREA'를 외치던 외국인이 'BYE KOREA'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은 지난 9월 말까지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갔다. 올해 1분기엔 매도 우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2~3분기 순매수로 전환하며 국내증시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10월 들어 사정이 달라졌다. 엄밀히 따져 9월 중순부터다. 외국인은 시장에서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저조 또는 우려와 함께 북한 도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건이 맞물렸다.

그 중심에 환율이 자리잡고 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외국인들이 속속 우리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더 이상 환차손을 감수할 만한 메리트가 우리 주식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0월 들어 외국인 순매도세로 전환 = 10월 들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추석 직후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기대를 걸었던 지수는 2020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9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 2분기부터 매달 1조원씩 사들이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원인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 매도세는 더욱 속도를 내 지난달 말까지 8500억원을 순매도했다. 7월 4조600억원, 8월 1조8000억여원을 순매수하던 것과 대조적이다.

10월 들어 외국인의 투자금 회수는 더욱 빨라졌다. 13일을 지나면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약 1조원을 넘어섰다. 이달 들어 7거래일 동안 1조2250억원이 빠져나간 셈이다. 10월부터 주식시장만 열리면 외국인들은 매일 1500억원 가까이 팔아치웠다는 의미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대탈출을 의미하는 '엑소더스 코리아(exodus korea)'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은 '강달러'에서 시작했다. 9월 초 1010원대에 머무르던 원·달러 환율은 9월 중순부터 상승했다. 10월 들어 1060원을 뛰어넘더니 지난 10일에는 1070.5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하루에만 외국인 매도는 1276억원이나 됐다.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 강세'는 무시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다. 환차손을 상쇄할 만큼 증시가 낙관적이라면 모를까 당분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이를 만회할 성장동력을 갖추지 못하면 외국인의 이탈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들이 달러 강세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시장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단기간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된다는 분석도 속속 이어진다.

10월 들어 외국인의 팔자 주문이 이어졌지만 올 한해 전체를 바라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한국거래소가 이달 초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외국인은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8조원 넘게 순매수세를 이어왔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에는 순매도했지만 2분기부터 상황을 역전시켰다. 총 5조8760억원을 순매수하면서 분위기를 바꾼 것. 이어 3분기 역시 5조2720억원 규모로 순매수해 2분기 연속 '사자' 분위기를 이어갔다.

때문에 9월 중순 이후 이어진 외국인의 순매도가 전반적인 추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인 매도세는 단기간이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이어진다.

그러나 달러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설득력을 얻으면서 사실상 4분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환율에 의한 외국인 매도세가 과도한 상황이지만 딱히 이를 반전시킬 반전포인트도 부족하다는 것이 금융투자 업계의 전반적인 해석이다. 때문에 당분간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FOMC회의가 변곡점 =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앞세워 '슈퍼달러' 시대를 대비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즈음 원화강세 기대심리가 되살아나면 외국인 매수세가 재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도 연준의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 환경이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이달 발표 예정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여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다양한 변수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점은 역시 28~29일 열리는 미국 FOMC다. 결과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 탈출의 가속화가 이어질지, 이들을 붙잡을 여력이 생길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강현기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의 달러 강세는,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감이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를 확대해 비롯된 현상"이라며 "당면한 현상은 과거 6년 동안 5차례나 경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자동차·석유·전자… 힘 못쓰는 수출주

엔低도 문제

현대·기아차 주가 17.9%·11.5%↓
삼성전자도 한달간 4.05% 하락
대외변수 불안…내수주에 관심을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엔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엔저(低)공포'가 몰려고 오고 있다. 특히 수출주들은 달러 강세를 반색할 틈도 없이 엔저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원·엔 환율은 100엔당 960.24원을 기록했다. 최근 안전자산선호가 강화되면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상 엔저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기업들의 수출품 가격이 낮아져 이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수출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석유제품, 자동차 등 대일 경합도가 큰 수출주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8월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개월 만에 8% 아래로 밀려났다. 반면 경쟁업체인 일본 도요타의 판매량은 지난해 8월보다 6.3%, 닛산은 11.5% 늘어났다.

이같은 경쟁력 약화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 무려 17.9%, 11.5% 각각 하락한 것. 이달 들어서도 현대차 주가(10일 기준)는 8% 넘게 떨어졌다.

수출주로 분류되는 삼성전자도 지난 한 달간 4.05% 하락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엔화 약세에 2분기에 이은 3분기 실적 부진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신저가 기록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하락률에서도 최고를 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출주들의 부진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양적완화 종결 시점이 임박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라며 "불리한 환율 여건이 국내 수출주의 가격 경쟁력 훼손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허재환 KDB대우증권 연구원 역시 "그동안 엔저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 환경에서 엔저는 한국 제조업 경기 개선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재고순환이 대만이나 일본 등에 비해 불리해 한국 제조업 경기의 개선세는 더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 변수가 불안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부양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있어 내수주의 관심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선영 기자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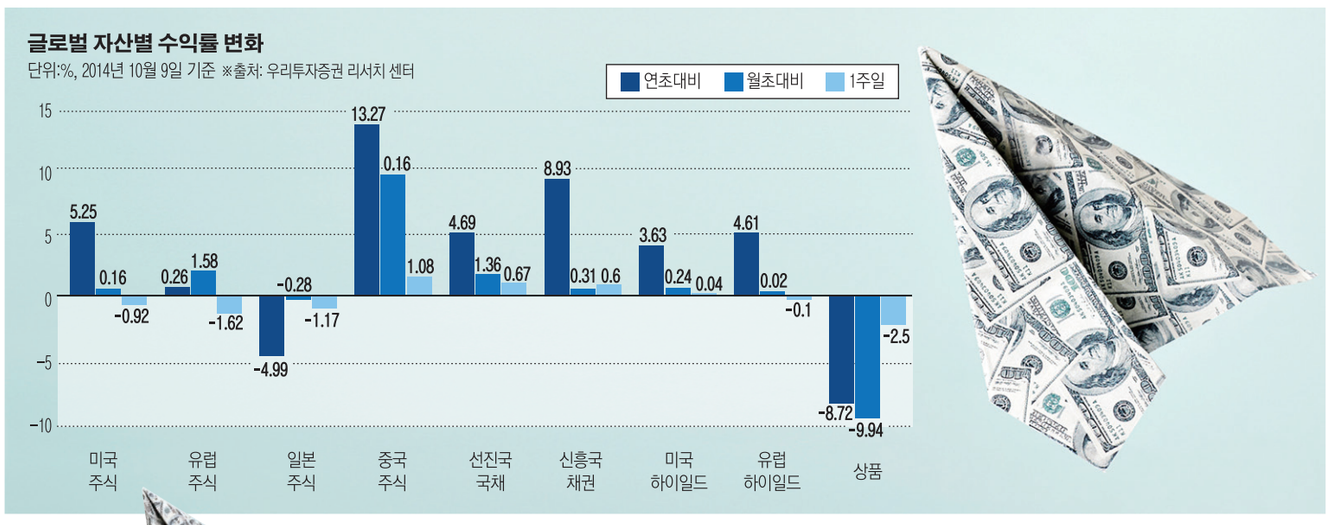
'안전한 채권으로' 선진국 주식서 93억달러 이탈

〈10월 둘째 주 1주일간〉

상품 vs 채권시장 뚜렷한 온도차

"원자재 값 직격탄" 펀드 90개 3개월 평균 수익률 -8.35%

"신흥국서 발빼기" 美 금리인상 조짐에 캐리 트레이드 청산



달러화가 다시 세계시장에서 최강의 지위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자금이 발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달러 강세로 원자재 가격은 직격탄을 맞았다.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은 채권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신흥국 자산으로 몰렸던 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강달러에 상품시장은 '추풍낙엽' = 강달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잠시 주춤했던 달러 강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9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달러 인덱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 이후 84.937까지 조정됐다. 하지만 10월 둘째 주 안전자산 수요에 힘입어 다시 85.912까지 상승했다.

역사적으로 달러 가치의 상승은 안전자산인 원자재 가격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국재 원자재 값이 보통 달러로 매겨진다는 점에서 달러 강세는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을 때 기존 100달러 어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10% 오르면 달러 표시 상품 가격은 90달러가 되기 때문이다.

하반기 이후 심화된 달러 강세로 세계 원자재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렸다. 10월 둘째 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3.59달러까지 내려가는 등 원유를 비롯한 정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큰 폭 하락했다. 브렌트유(Brent) 가격도 88.11달러까지 떨어져 장중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기준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 90개의 3개월 평균 수익률은 -8.35%를 기록했다.

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반등했다. 황병진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최근 미 3대 주가지수 등 글로벌 증시에서 투자자금이 이탈되는 가운데 안전자산(risk-off) 수요 확대는 단기적으로 금을 비롯한 주요 귀금속 가격의 강한 지지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채권' 자금 대이동 = 달러화 강세로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한 자금이 유럽 경기둔화 우려로 이탈에 속도를 내면서 채권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1주일간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 모두 주식 펀드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해 채권 펀드로 옮겨갔다. 이 기간 동안 선진국 시장에선 93억8400만달러가 주식 펀드에서 빠져나갔다. 이 중 미국 등 북미지역의 유출 규모가 65억600만달러로 가장 컸다. 서유럽 지역 순유출액이 16억1500만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5억1500만달러가 이탈했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선진국 채권펀드에 2014년 2월 이래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둘째주 선진국 채권펀드로 2014년 2월 이래 최대 규모인 151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특히 북미지역이 122억99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서유럽 지역은 18억5900만달러가 들어왔다. 신흥국 시장도 6억3800만달러가 채권 펀드에 순유입됐다.

이미선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독일 등 유럽의 경기둔화 우려가 선진국 주식펀드 자금 유출의 배경이 됐다"며 "주요국들의 공격적인 양적완화로 글로벌 금리 레벨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미 금리의 상대적인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채권 펀드로 자금 유입이 컸다"고 설명했다.

◇캐리 트레이드로 신흥국 자금 유출 가속화 우려도 = 달러화의 가치가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신흥국 자산으로 몰렸던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 절차를 밟을 거란 경고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통화인 달러로 자금을 빌려 고금리를 제공하는 신흥국 자산에 투자를 했던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신흥국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 조짐을 보이자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9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신흥국의 채권시장에 이미 자금 유출세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현지 통화로 발행되는 채권 발행액이 8월 220억달러를 기록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현지 통화로 발행된 신흥국의 월평균 채권 발행액은 620억달러였다. FT는 신흥국에 투자된 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신흥국 채권에 투자된 것만 해도 2조 달러 가량이라고 추정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 미-일 10년 국채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 간의 관계에 기초할 때 현재 미-일 금리 차에 대응되는 엔·달러 환율을 계산해 보면 97엔 수준"이라며 "이미 엔·달러 환율은 오버슈팅(Overshooting)한 상태지만 미국 금리가 상승해 미-일 간 금리 차가 확대돼 엔 캐리 트레이드 유인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etoday.co.kr

체면구긴 '원자재'… 기세등등 '뱅크론'

펀드 희비도 엇갈려

원자재, 중국 성장 둔화에 강달러 이중고

미래에셋 'TIGER농산물선물…' -17.63%

뱅크론, 가격 변동폭 작아 안정적 성과

프랭클린 '미국금리연동…' 1280억 몰려

달러 강세 기조가 두드러지면서 펀드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원자재 펀드들은 수요 감소 여파라는 이중고까지 만나 울상을 짓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변동금리부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뱅크론 펀드들은 함박웃음이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연초 원자재펀드의 평균 유형성과(-4.93%)는 동기간 해외주식형 유형평균(+1.50%)을 밑돌았다.

주요 원자재 펀드들로는 미래에셋TIGER농산물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농산물-파생형] -17.63%, 삼성KODEX은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은-파생형] -14.35%, 삼성KODEX구리선물(H)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구리-파생형 -9.89% 등 저조한 성과를 기록해 체면을 구겼다.

원자재는 거래 통화인 달러가 약세일 때는 오르고, 강세일 때는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세계 최대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원자재 값이 타격을 받자 펀드 손실도 불어난 것.

KDB대우증권이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던 지난 9월 한 달간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조사한 결과, 금(-5.97%), 은(-12.44%), 서부텍사스유(WTI)(-5.00%), 구리(-4.07%), 옥수수(-10.65%) 등이 모두 급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그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농산물 등의 공급 과잉 등 수급 측면에서 오랫동안 고전한 원자재펀드가 달러 강세라는 복병까지 만나 당분간 고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천원창 신영증권 원자재 담당 연구원은 "달러 강세는 원자재 전반에 약세를 끼치는 악재지만, 이 가운데서도 금, 은 등 귀금속은 직격탄이 가장 커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자재펀드가 고전하는 동안 달러 강세 국면에 상승이 기대되는 뱅크론(시니어론) 펀드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뱅크론펀드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변동금리부 대출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운용 전략을 추구한다. 통상 3개월짜리 리보(국제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런던 은행간 적용 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다. 따라서 현지 시중금리가 인상할 경우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등급 미만에 속하는 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대출 채권인 뱅크론은 주로 기업의 자산 담보로 대출이 이뤄져 다른 부채보다 우선적으로 상환이 돼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최근 시니어론 펀드에도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수탁고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제 이스트스프링운용이 지난 5월 선보인 미국 뱅크론펀드는 출시 4개월 만에 1097억원의 자금이 몰렸고, 프랭클린템플턴투신이 선보인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펀드'도 1280억원 규모의 자금을 빨아들였다.

이스트스프링운용 관계자는 "뱅크론은 금리변동(상승 및 하락)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작아 타자산 대비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 추구가 가능한 투자처고,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플러스 수익을 냈다"며 "뱅크론은 선순위 담보부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채권보다 지급순위가 높다. 즉 지급순위, 담보여부, 금리상승 리스크를 감안하면 하이일드 대비 뱅크론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1070원서 등락… 北변수·금리인하 등 상승재료 여전

〈원·달러 환율〉

환율 이슈… 전문가 진단은

달러

한·미 금리차 줄이고 투자 확대로
'완만한 강세' 중장기적 속도 조절

엔화

日 중앙은행 금융완화 추가 없을 듯
내년 초까지 달러당 107~111엔 예상



최근 급변하는 환율로 시장이 출렁인 후 향후 달러와 엔화의 방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달 1일 1058.0원에 시작해 지난 10일에는 1070.5원까지 오르며 10여일 만에 12원가량 급등했다.

13일 원·달러 환율은 1067.70원으로 마감하며 다시 1060선으로 떨어졌다.달러화는 미국 9월 고용지표 발표 후 강세가 가파르게 전개됐고, 홍콩 시위 지속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이를 지속했다. 그러나 달러화의 가파른 강세는 최근 미국의 조정으로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9월 회의록에서도 달러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엔화 역시 일본 당국의 통화 완화 기조에 따라 약세가 조정되고 있다. 13일 원·엔 환율은 996.08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0.30% 소폭 상승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달러화의 강세, 엔화 약세 기조가 완만하게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화 완만한 강세 지속 =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60원 후반에서 1070원 중반대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북한 변수 및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달러당 1080원선까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손은정 우리선물 연구원은 "최근 달러화 조정에도 세계 성장률 둔화 우려에 따른 세계 증시 하락세로 안전선호 심리가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엔화 강세에도 원·달러 하락세가 제한적이고 북한 변수,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기대 등 달러 상승 재료에 민감한 재료들로 원·달러 상방 압력이 더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달러화는 최근 강세가 지나쳤던 측면이 있어 원·달러 상승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작용, 중장기적으로는 속도를 조절해 완만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15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 원·달러 환율을 1060원선으로 예상했으며 2015년 4분기 1090원으로 2.8%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6년 4분기에는 1120원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중기 원·달러 환율은 2000~13년 평균환율인 1127원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철희 유안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한·미 금리차 축소, 그리고 새 경제팀의 내수부양 정책에 의한 투자확대와 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폭의 축소를 반영해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배성진 현대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미국이 대내적으로 물가상승률 안정세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달러 강세 지속 전망에 따른 실질금리 플러스 전환 시 미국 경제 및 기업이익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달러 강세 속도는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엔화 약세 및 유로화 약세에 대한 컨센서스 지속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역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엔저 속도 완화 = 엔화의 경우 단기적으로 약세 진정국면에 들겠고 중기적으로 완만한 약세가 전망된다. 일본 중앙은행(BOJ)이 추가적인 금융완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엔·달러 환율은 내년 4분기에는 116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 초까지 107~111엔의 박스권이 진행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엔·달러 환율의 상단은 120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희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 소비세 인상에 앞서 추가 부양이 예상됐으나 엔화 약세로 인해 당장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엔·달러 환율이 109~110엔까지 내려가며 명목상으로는 2007년 120~125엔을 크게 하회하고 있지만 실질실효 환율로는 이미 2007년 저저점 수준을 하회해 198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일본 내수기업은 경제 혜택은 받지 못하고 피해만 입고 있어 아베 정부에서도 엔화 약세가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추가 금융완화 기대가 뒤로 미뤄지며 엔·달러 환율도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엔화 약세는 BOJ가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선택해서 진행되기보다는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에 맞추어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미국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안정되면서 미-일 장기 금리 차가 안정돼 있는 것도 엔화 약세가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리스크 대비 투자전략은

"달러 강세지만 수출株보다 내수 기업 주목"

원화 약세 수출주에 호재라도 중요한 건 물량
유럽·중국 경기회복 불투명으로 재미 못본다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을 맴돌다 결국 추락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이에 대비하는 투자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달러 장세지만 수출주보다는 내수기업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재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원화가 약세로 가도 수혜를 받으려면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아야 하는데 성장률이 떨어지고 유럽 경기가 악화되는 등 신흥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없는 구간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주들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도 중요하지만 물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럽과 중국의 경기지표가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는 수출 종목들이 큰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개별종목들의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매출 성장이 꾸준히 진행되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매크로 이슈가 더 불거진 상황이라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 지표가 나와야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며 "수출 종목들은 가격 측면에서 환율 때문에 분명 수혜를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 즉 물량이 받쳐줘야 하는데 유럽과 중국의 경기가 기대에 못 미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럽의 경기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선전하고 있던 독일 지표도 하락세로 나타났다. 독일 통계청은 지난 8월 수출이 전월 대비 5.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아시아의 경기침체로 기계설비 등 자본재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한 것도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달러 강세가 한동안 계속돼도 원화가 약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내놓았다. 당장 수출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수업종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도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수출 기업은 환율도 중요하지만 수출 물량을 받쳐주는 유럽과 중국의 경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실물지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 6월부터 계속됐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10월 종료되면서 유럽에서 돈을 풀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응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지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달러 강세만으로는 수출종목들이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과 유럽이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니 달러 강세는 추세적으로 계속 될 테지만 원화가 약세로 전환되냐고 묻는다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원화 약세는 지난 여름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때 신흥국과 달리 한국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뒤늦게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11월까지 원·달러 환율이 1080원까지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 것"이라며 "신흥국 흐름을 보면 글로벌 IB 예측에 따라 좌우되는 '자기 실현적 예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들의 원화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원·달러 환율이 1080원까지 올라도 11월 중순부터는 내려갈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하면 지금 수출종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수출은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크로가 더 중요하므로 내수주가 더 낫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





비에스이홀딩스 BSE

마이크·스피커 이어 LED 조명까지…

전세계 '눈과 귀' 사로잡았죠

박진수 비에스이홀딩스 대표이사.

작지만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스몰 자이언츠'라 말한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장을 선도하며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른 일등 기업, 거인 부럽지 않은 스몰 자이언츠 기업이 있다. 바로 글로벌 종합 IT 부품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비에스이홀딩스다. 휴대폰 마이크 시장은 2003년까지 일본의 호시덴·마쓰시타와 비에스이가 3강을 이루는 구도였지만, 독보적인 기술력과 발 빠른 시장 대응력을 겸비한 비에스이가 시장점유율 60%를 획득하며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다.

소형 마이크로폰 세계점유율 60%
소재부터 장비까지 전공정 자동화
국내 가전·車·신호등에 부품 공급
전력효율 극대화 LED패키지 제작

◇국내 유일 음향 솔루션 전문기업 '비에스이' = 비에스이는 1987년에 설립, 휴대폰용 마이크와 스피커 생산에 매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기업이다. 소형 마이크로폰 시장점유율은 60%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2개 중 1개에 제품을 공급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글로벌 강소 기업이다. 비에스이의 이러한 성과는 탄탄한 기술력과 강력한 마케팅 네트워크가 바탕이 됐다. 특히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소재부터 장비에 이르기까지 직접 제작하며 전 공정을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품질도 세계적인 휴대폰 업체들이 인정할 만큼 뛰어나다.

세계 1위 시장을 석권한 비에스이는 장외 부품기업에서 상장기업으로, 또 마이크폰 부품업체에서 세계적인 음향부품 업체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에서 스피커까지 말 그대로 세계인들의 입과 귀를 장악하겠다는 게 비에스이의 포부다.

비에스이 관계자는 "세계 주요 제조업체를 모두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어 고객 다변화에 강하고, 평균단가와 마진율이 높은 제품과 신규제품 비중 증가로 수익성 지표도 상승 추세"라며 "생산기지 재편을 통해 원가절감과 수율 개선이 가시화되는 등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력, 제품력, 대응력 3박자 갖춘 '이츠웰' = 이츠웰은 1997년 설립된 회사로 LED 패키징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LED 전문회사이다. 오랜 LED 칩 기술을 바탕으로 출력량을 최대 85% 이상 끌어낼 수 있는 LED 패키지를 제작, 전력소비 대비 효율을 높였다. 또 표면실장형 등 다양한 패키징 기술과 함께 월 7500만개의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확보하고 있다.

이츠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램프 타입에서 COB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했다는 점이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패키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갖췄다. 국내외 톱 생활가전 및 자동차 제조업체에 실내조명용 LED 부품을 다수 공급 중이다. 국내 설치 신호등의 85% 이상에도 LED를 공급하고 있다. 이츠웰은 LED 시장 확대에 힘입어 매년 두 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고공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자회사 간 하모니로 시너지 상승, '비에스이홀딩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 2006년 지주회사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계열사 이츠웰을 통해 LED 시장을 선점한 비에스이홀딩스는 지주회사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자회사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에스이는 베트남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면서 생산 효율성 증대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3억개의 MEMS MIC 생산 능력에 이어 연 3억개의 SPK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준비 중이다. 1차적으로 비에스이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 동관·천진·영성 등 3곳에 해외 공장이 논의되고 있어 비에스이홀딩스의 자회사 간 강력한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생산기지 재편과 함께 비에스이홀딩스의 또 다른 변화는 디지털 MIC, MEMS, 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증가와 제품의 모듈 판매이다. 특히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모듈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Winners Club AMOREPACIFIC CORPORATION

금발미녀도 '에어쿠션'에 반했다

〈쿠션형 파운데이션〉

中·북미·서유럽 등 5개 권역
작년 해외사업 매출 5400억
업계 첫 1억달러 수출탑 달성
히트상품 주력·매장 오픈 등
다양한 마케팅…수익성 개선

아모레 퍼시픽이 북미·서유럽·동남아시아·대중화권·일본의 세계 5개 권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미주·프랑스를 3대 축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시아 미(美)의 정수를 세계에 전파한다'는 모토를 바탕으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Asian Beauty Creator)' 실현을 위해 글로벌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1945년 창립 이래, 서구화로 인해 잊혀졌던 아시아 속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찾아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아모레퍼시픽만이 창조할 수 있는 아름다움은 '아시안 뷰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창출하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1964년 '오스카' 브랜드를 내세워 국내산 화장품 업계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한 아모레퍼시픽은 전 세계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90년대 초부터는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추구하며 중국과 프랑스에 공장을 설립해 현지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글로벌 중흥기를 맞이했다.

현재 북미·서유럽·동남아시아·대중화권·일본의 세계 5개 권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미주·프랑스를 3대 축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사업은 지난해 말 매출(K-IFRS 기준) 5399억원을 달성, 전년 대비 27.8% 성장했다. 중국 사업에서 29.1%,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은 64.1% 성장하며 해외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올 2분기 해외사업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등 성장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 1904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28% 고성장했다. 성장 시장(중국·아시아 등)은 주요 히트상품 판매가 확대되며 48.8% 성장한 163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중국 사업은 브랜드력 강화 및 채널 다각화로 수익성 개선을 동반한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설화수는 기존점 성장 및 매장 확대로 매출이 고성장했고, 라네즈는 히트상품 판매 확대로 백화점 및 e-커머스 경로에서 견고한 성장을 지속했다. 이니스프리는 신규 매장 오픈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화로 신규 고객 유입이 증가하며 매출이 고성장했다.

그 외 아시아 시장(중국, 일본 제외)에서는 설화수, 라네즈의 히트상품 판매 확대와 이니스프리의 성공적 론칭으로 매출의 고성장세가 지속됐으며 백화점과 더불어 FSS 및 e-커머스 등 유통채널 다각화로 고객 접점을 확대했다.

또한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통한 견고한 질적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을 동반한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성숙 시장(프랑스, 미국 등)의 전반적인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에서의 히트상품 판매 증가로 백화점, 세포라 등 전 경로에서 고른 매출 성장을 보였다. 라네즈 브랜드의 타깃 입점 및 신규 지역(세포라 캐나다 등) 진출 확대로 유통 및 지역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프랑스 시장은 신제품(롤리타 렘피카 ELLE L'AIME)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2013년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해 본사와 해외법인 간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브랜드 중심의 조직체계를 재정비했다. 이에 글로벌 시장과 고객에 맞춤화된 브랜드 전략을 펼침으로써 글로벌 사업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68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원대한 기업(Great Global Brand Company)으로 도약하자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과 고객에 맞춤화된 브랜드와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글로벌 브랜드 컴퍼니(Global Brand Company)'로 나아갈 방침이다.

서경배 회장은 "고객 중심의 필실천(必實踐) 요소들을 민첩하게 실행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한국 밖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브랜드 컴퍼니(Global Brand Company)의 비전을 강조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의 지난해 수출액은 총 1억 500만 달러(2012년 7월~2013년 6월 기준)를 돌파하며 2013년 12월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 최초로 '1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아모레 퍼시픽이 북미·서유럽·동남아시아·대중화권·일본의 세계 5개 권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미주·프랑스를 3대 축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라네즈 중국 상하이 팍슨 백화점 매장. 사진제공 아모레퍼시픽

고객과 기술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성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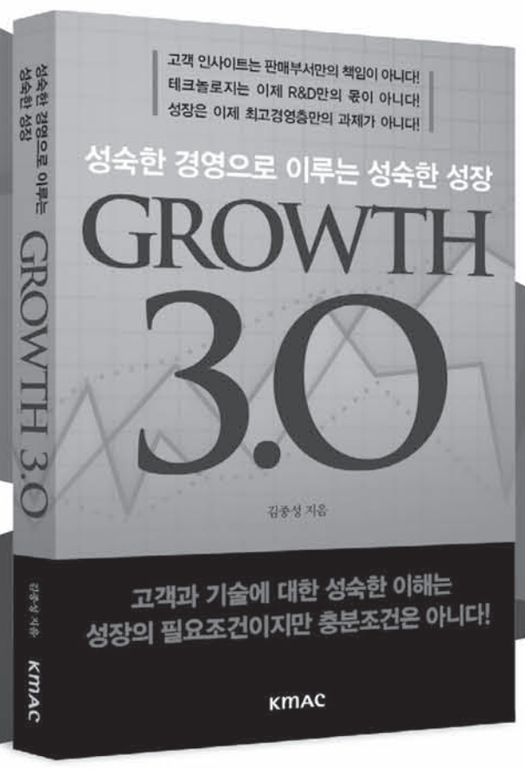
성숙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4대 역량!

1 **혁신력** :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성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각 기업의 전통과 사업 무대, 전략 등과 연계되어 갖추어져 있다.

2 **예측력** : 시장에 대한 예측력은 성장 기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역량이다. 마켓 인사이트에 기반한 예측력과 추진력은 핵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3 **활용력** : 성장에 능한 기업들은 성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자신들이 가진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브랜드, 유통망, 고객 관계, 기술, 네트워크 조절점 등 모든 자산을 성장에 활용한다.

4 **적응력** : 성장에 능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결합, 연결, 혹은 분리시킴으로써 성장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GROWTH 3.0
김종성 지음 | 값 15,000원

●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절찬리 판매중! 다부수 구매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문의 : Tel 02-3786-0184 / Fax 02-3786-0107 / njh@kmac.co.kr

KMAC

허리 굽는 한국, 허리 펴는 '헬스케어펀드'

신약·의료 업종 고령화 수혜종목 부상… 올들어 20% 넘는 고수익 올려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고령화 수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헬스케어펀드들이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이 고령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미용관련 신약이나 신물질,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헬스케어 업종들의 이익이 급증하는 추세가 뚜렷한 것.

14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직후 헬스케어펀드(19.15%)의 성과는 동기간 해외주식형 유형평균(0.92%)과 국내주식형유형평균(-2.56%)을 훨씬 웃돌았다.(기준일: 2014년 10월 7일) 주요 펀드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A 25.57%, 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lass Ae 22.72%,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A 20.20% 등이 20%가 넘는 고수익을 연출했다.

펀드매니저들은 고령화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헬스케어펀드 수익률
(단위: %)
※ 기준일: 2014.10.7

펀드	수익률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	25.57
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lass Ae	22.72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A	20.20

미래에셋운용 리서치본부 박택영 팀장은 "헬스케어 업체들이 실적과 비즈니스 방향성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대형 제약사들보다는 니치마켓에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면서 "향후 이익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관심보다는 안정적으로 외형과 이익이 성장하는 업종 및 종목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 가운데서도 국내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는 국내 헬스케어 업종에 주로 투자한다.

한화자산운용 김종육 글로벌에쿼티운용팀 매니저도 "최근 3년 동안 헬스케어 업종들이 매년 30%씩 수익을 내며 3년 수익률이 100%에 이르는 등 헬스케어 섹터는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헬스케어 섹터 중 2000년대 초반 버블 논란이 일던 바이오주들도 지금은 꾸준히 신약을 개발하고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옥석이 가려진데다, 타 업종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아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화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A는 3년 수익률이 무려 109%에 달한다. 이 펀드는 로슈, 머크, 노바티스 등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스위스 등 글로벌 기업의 제약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헬스케어펀드 투자시 테마펀드의 특성을 감안하고, 금리 인상기에는 신중히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미래에셋證, 파생결합증권 11종 출시

미래에셋증권은 연 7.3% 하이파이브형 ELS상품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11종을 오는 17일 오후 2시까지 판매한다. 파생결합증권 규모는 11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 제6734회 하이파이브 ELS'는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하이파이브 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 평가일 및 만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86% 이상이면 연 7.3%의 수익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 스마트폰 자산관리웹에서 확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또는 금융상품상담센터(1577-93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영백씨엠·하나머스트 2개업체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주 영백씨엠, 하나머스트기업인수목적 등 2개사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영백씨엠은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111억9800만원, 영업이익은 25억7500만원을 기록했다. 하나머스트기업인수목적은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하는 벤처회사다. 지난해 매출액 312억9900만원, 영업이익 35억1800만원을 달성했다.

14일 현재 상장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회사는 총 27개사며, 올해 중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회사는 총 62개사다.

한편 한국IR협의회는 영우디에스피, 테라셈, 슈피겐코리아, 테고사이언스 4개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13일부터 22일까지 한국거래소 별관 2층 IR룸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코스닥시장 상장 전에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한국IR협의회가 주관하고 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후원하고 있다. 한국IR협의회는 공모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업설명회를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新 배당주'에 뭉칫돈 몰린다

배당확대 기대감에 고공행진… 8월 한달 6513억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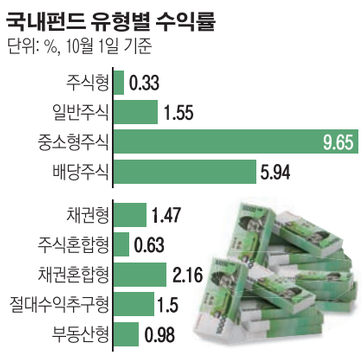
배당주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데다 외국인 투자자 및 연기금 중심의 주주환원정책 실시 압력으로 향후 기업들의 배당성향 상승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새 경제팀은 경제정책 방향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지출한 금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신(新) 배당주 트렌드는 △현재 배당성향은 낮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배당성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기업 자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환경에 따라 배당정책의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되는 기업 △신사업·신시장 진출 및 시장 지배력 확대 등 실적 성장으로 향후 배당성장과 지속적 고배당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최근 이런 영향으로 국내 배당주펀드의 자금 유입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8월 한 달 국내 주식형 펀드는 5730억원의 자금 유출이 있었으나 배당주펀드로는 6513억원의 자금 유입이 있었다. 수많은 배당주펀드 중 최근 트렌드가 잘 반영되어 있는 상품을 고르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출시된 '유진 챔피언 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은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20~25%의 주가상승률과 1~3%대 배당수익률을 유지해온 동서, SK가스와 같이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배당을 유지한 기업들을 30% 수준에서 투자를 하고 투자자산의 70% 이상을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연 4~8%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국내펀드 유형별 수익률
단위: %, 10월 1일 기준

상품 가입은 국민은행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할 수 있다.

김대원 유진자산운용 상품개발팀 팀장은 "최근 설정액이 큰 일부 배당주펀드에 자금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규모가 클수록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아 개인의 투자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펀드특성 및 전략을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19개국 초청 한국 자본시장 연수

금투협 17일까지… 투자세미나도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금융투자 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자본시장 연수'를 개최한다.

금투협은 신흥시장의 업계 임직원 및 감독당국 등 유관기관 임직원을 초청,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제10회 한국자본시장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불가리아, 이집트,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역대 최대인 19개국의 27개 기관에서 총 35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는 금융투자 업계와 협회, 거래소, 감독당국 등의 기관장부터 실무진까지 다양하다.

참가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의 현황과 미래, 감독체계, 금융상품과 시장인프라 등의 이론교육을 듣고 증권유관기관 및 금융투자 회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연수와 연계해 15일 개최되는 신시장 금융투자 세미나에도 참여해 각국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은 개강식에서 "이번 자본시장 연수가 10회를 맞아 그동안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질적 성장을 모색해봤다"며 "최근 IOSCO AGM에서 거론된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 도입에 대응해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번 연수가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아무도 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릴 수 없는 배



우석훈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12쪽
값 12,000원

어떤 사회는 비극을 통해 배우고 어떤 사회는 재난을 통해 더 망가진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벌어진다. 그러나 같은 비극 앞에 어떤 사회는 더 성숙해지지만, 엄청난 희생을 겪고도 어떤 사회는 오히려 망가진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경제학자 우석훈이 쓴 《내릴 수 없는 배》는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국 사회를 깊숙이 관통하는 시점으로 그 배경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식 재난 자본주의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왜 생명의 문제가 경제적 차별에 좌우되는가?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공공 시스템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이 크나큰 비극 뒤에서 재난 자본주의는 어떻게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희망을 가져다줄 미래의 주체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문의 : 02)3670-1098

20만 독자 인정! 유리지갑 월급쟁이를 위한 재테크 교과서!

회사일이 바빠 재테크는 뒷전인 당신에게!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우용표 지음 | 길벗 | 468쪽 | 값 14,000원
특별선물 비즈니스 플래너(초판 한정)

한 달에 한 번 감동을 맛보는 월급쟁이, 당신의 월급에 축복 있으라!

꼬박꼬박 월급은 받는데 왜 모이지는 않을까? 돈을 모으고 싶은 월급쟁이를 위해,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이 더 강한 완전체로 돌아왔다!

당신의 빤한 월급을 특별하게 만드는 93가지 비책!

수입 빤한 월급쟁이들. 오히려 이 점이 체계적인 계획만 세운다면 장기적인 재테크에 더 유리하다. 언제나 헷갈리는 펀드·주식·부동산·예적금·보험의 명쾌한 해답을 얻고, 특히 각 분야별로 조심해야 할 내용을 톡톡히 배워 보자.
이 책을 당신의 재테크 비서로 삼아라. 연봉 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인 직장인이 3년 안에 목돈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재테크 지식을 쌓아야 하는지, 또 투자스타일별, 나이별로 어떤 재테크 전략을 써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줄 것이다.

문의 : 02)330-9824

정신과 박사 이나미가 말하는 미래 인간의 모든 것

욕망도 인간도 관계도 사라진 시대가 온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다음 인간



이나미 지음 | 시공사 | 252쪽 | 값 13,000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급증, 탈북자 호스트의 출현, 노현자의 실종..."
'다음 인간'은 디스토피아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포르노와 성매매가 더 늘어나며, 자극의 범람 속에 오감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무감동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 사이코패스 등이 많아진다. 20~30년 후, 혹은 10년 후, 정신과 박사 이나미가 상상하는 미래 인간의 모습이다. 바로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다.
이제 기술이 없는 인간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수많은 테크놀로지는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지만, 인간이 만든 기술은 역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기술이 우리 인간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하여 앞으로 나타날 '다음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야기한다.

문의 : 02)2046-2800

제 26차 경제경영 연합광고 캠페인 ◉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차 떼고 포 떼도… 아랑곳 없는 SM

3분기 영업익 큰폭 상승… 제시카 탈퇴·루한 소송 등 영향 없어

에스엠이 잇딴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실적은 큰 폭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에스엠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적을 밝힐 수 없지만 올 2분기에 비해 3분기에만 동방신기(65만명)와 소녀시대(20만명)를 비롯해 총 95만여명의 콘선트 관객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루한의 탈퇴는 엑소의 활동에는 별 영향이 없다"며 "글로벌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에스엠은 그룹 '엑소(EXO)' 멤버 루한이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지난 9월4일 장중 5만원에 근접하던 주가는 한달여만에 2만7000원대까지 미끄러졌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도 경쟁사인 와이지엔터 보다 낮아졌다.

에스엠의 주가 폭락은 기관투자자들의 '묻지마' 매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시카의 소녀시대 멤버 탈퇴 이후 매도에 나선 기관은 전일까지 200여만주를 내다 팔았다.



에스엠 주가 추이
단위: 원



이에 일부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루한이 에스엠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 펀더멘탈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개인투자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실제 증권사 연구원들은 에스엠의 잇단 악재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31억원으로 예상했던 대로 부진했다"며 "3분기 영업이익은 큰 폭의 실적 호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 주요 아티스트들의 일본 콘서트 활동 정산이 3분기에 반영되고, SM타운 및 엑소의 글로벌 활동 수익도 3분기로 잡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증권사 연구원도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이기 때문에 기관의 대량매도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실적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고, 모바일사업과 음원, 드라마 사업 등, 수익원의 다각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공시돋보기

미네비아 대규모 '워런트 폭탄' KJ프리텍 경영권 '폭풍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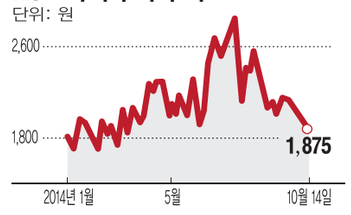
KJ프리텍의 2대주주인 일본 미네비아(MINEBEA)가 모아텍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신수인수권(워런트)를 행사했다.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존 경영진과의 분쟁 끝에 지난 8월 KJ프리텍의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2대 주주인 미네비아(MINEBEA)가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참여를 노리는 상황이어서 향후 추가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일 KJ프리텍에 총190만4957주의 워런트가 행사됐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0.9%에 달하는 물량으로 행사가격은 119만여주는 1258원, 71만여주는 1263원이다. 신주는 오는 24일 상장될 예정이다.

이번에 행사된 워런트는 일본 부품 업체인 미네비아(MINEBEA)는 지난 7월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이로 인해 미네비아는 모아텍 보유 지분 등 총 21.2%를 확보한 상태다. 미네비아는 모터 및 베어링 사업을 하는 일본 제조업체로 지난 2012년 모아텍 지분을 335억원에 인수하면서 국내에 진출했다.

하지만 경영권 확보 이후 모아텍의 실적은 하락했고 추가 투자도 이뤄지지 않는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해외 중소형 백라이트유닛(BLU) 시장 점유율 1위인 미네비아가 국내BLU 업체인 KJ프리텍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곱지 않는 시선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KJ프리텍 주가 추이
단위: 원



이기태 회장이 2011년 최대주주로 등극한 한 이후 3년 만에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미네비아의 워런트 행사로 추가 경영권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1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최대주주에 올랐던 이기태 회장은 지난 8월 홍준기 전 대표 지분 135만 9513주(지분율 7.78%)를 스마트인베스트먼트를 통해 59억 7900만 원에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확보했다. 10월 13일 현재 KJ프리텍 최대주주는 41만주(23.47%)를 보유한 이기태 회장으로 우호 지분은 총 23.69%다.

업계 관계자는 "미네비아 워런트 행사와 관련해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지분 구조 상에서는 분쟁을 하는 모습을 띌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일련의 상황은 회사의 경영 안정성에 큰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선박장비업체 삼영이엔씨, 美 진출 협의중

내비게이션·레이더 판매 연내 실질적 매출 기대

선박전자장비 업체 삼영이엔씨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업체들과 협의 중이다. 회사 측은 연내 실질적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14일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해외 시장 개척은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재 주요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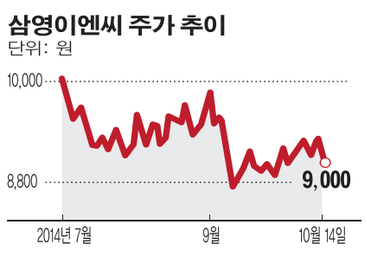
미국은 전 세계 레저보트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주요 선박전자장비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기도 하다.

회사 관계자는 "고사양 선박네비게이션과 레이더 등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을 위주로 미국 지역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며 "가격 정책 등을 세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삼영이엔씨는 지난 6월 공장을 증설하며 캐파와 수율을 향상시켰다.

회사 관계자는 "공장 증설로 효율화를 높여 수율은 20~30% 향상 시켰고, 제품을 기존 보다 두배 더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도 늘렸다"고 밝혔다.

삼영이엔씨 주가 추이
단위: 원



올해 신제품을 대거 출시한 것도 향후 성장 동력이라는 분석이다. 상반기 36마일 소형레이더에서 72마일 레이더를 개발해 출시했고, 하반기에는 충돌위험물체의 위치추적기능이 탑재된 '알파 레이더'를 선보이는 등 레이더 제품군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선박의 방위정보를 제공해주는 GPS 콤파스, 선내지령장치 등의 장비도 연내 출시하고 국내외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5년 간은 새로운 제품을 내놓지 못했는데, 올해 신제품 출시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 됐다"며 "내년에도 새로운 기종과 장비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 안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도 삼영이엔씨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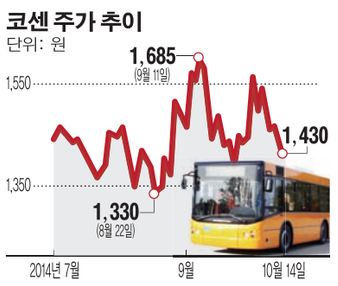
국제해사기구(IMO)는 2018년 차세대 운항체계인 'e-내비게이션'을 시행하기 위해 국제협약 제·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e-Navigation)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e-내비게이션이 본격 도입될 경우 향후 10년간 1200조원의 직간접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20% 수준인 240조원을 한국이 점유할 것"이라며 "사고에 취약한 어선과 소형선박용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국내 해양 환경에 특화시킨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코센 자회사 '이젠에너지' 터키서 215만 달러 수주

코센 주가 추이
단위: 원



강관 및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코센이 터키 이스탄불시에 이어 콘야시에 진출하며 터키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 시장 개척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코센은 14일 터키 CNG 차량 개조 자회사인 이젠에너지(IZEN ENERJI)를 통해 콘야시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 60대에 대한 개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이스탄불에서 체결한 첫 수주에 이은 두 번째 수주로 총 수주 금액은 215만(한화 약 23억원) 달러이다.

이젠에너지는 지난해 터키 대중교통 공기업인 이스탄불의 IETT(Istanbul Electricity, Tramway and Tunnel General Management)와 총 40억원 규모의 버스 120대 개조 공급계약을 성사시키며 터키 CNG 차량 개조사업 진출에 성공한 바 있다.

CNG 차량 개조사업은 기존의 엔진을 경유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엔진으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유류비 절감에 효과적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름값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터키에서 디젤 엔진을 CNG 엔진으로 교체하면 유류비가 절반 가량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젠에너지가 개조한 CNG 차량의 경우 개조 비용이 신차 구입 대비 70% 가량 저렴한 반면 효율은 오히려 1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NG 엔진으로 교체하면 유류비 절감은 물론 중고차의 신차 전환 효과도 볼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센 관계자에 따르면 "터키 내 대중교통 공기업과 CNG 차량 개조 실적이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코센이 유일하다"며 "이스탄불에 이은 콘야에서의 수주로 현재 2~3곳의 대도시 대형 운송업체들이 CNG 차량 개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5000억원 규모의 터키 시장 선점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신한금융투자 ELS 등 11종



신한금융투자가 다양한 수익구조를 지닌 주가연계증권(ELS)을 포함한 11종의 새상품을 판매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17일까지 'ELS 9704호'를 포함한 새 상품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 가운데 'ELS 9704호'는 조기상환형 스탭다운 구조로 3년 만기, 노낙인(No Knock In) 구조의 삼품이다.

지갑 채운 한앤컴퍼니, M&A 시장 두리번

9699억 펀드조성… 대한전선·포스화인 예비입찰, KT렌탈 인수도 검토

한앤컴퍼니가 M&A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현재 한앤컴퍼니는 대한전선, 포스화인 예비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한앤컴퍼니는 여기에 동부하이텍 예비입찰 마감일을 앞두고 인수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렌탈 인수도 검토중이다.

매물로 나온 4곳의 인수가격만 1조원이 넘는다. 또 시멘트 기업에 투자를 성공한 전력이 있어 아직 딜이 시작되지 않은 동양시멘트, 쌍용양회 등의 인수후보자로 언급되는 등 가장 적극적인 PEF로 꼽히고 있다.

보통 PEF는 투자 정관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PEF의 펀드 계약기간이 6년이라면 절반이 투자기간, 나머지 절반은 회수기간으로 구분된다. 정관에서 투자기간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을 집행할 것을 명시하는데, 약정액의 80%를 집행하는 것이 관례다. 이 때문에 PEF는 펀드 조성 후 적극적으로 투자 대상을 찾게 된다. 한앤컴퍼니의 경우 펀드를 만든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최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자금력이 있는 한앤컴퍼니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M&A 관계자는 "최근 시기적으로 매물이 좋은 가격에 많이 나와 기회가 많이 생겨 적극적으로 수익원을 찾는 것 같다"며 "모든 딜에 진지하게 들어가는건 아니지만 매물이 나오면 대부분 검토하기 때문에 유력 인수후보자로 언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앤컴퍼니는 설립 후 이듬해 2011년 8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지난 5월에는 1699억원 규모의 펀드를 새로 등록해 투자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국내 토종 PEF들이 엑시트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고,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떨어져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한앤컴퍼니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다음 펀드레이징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에 나선다는 시각도 있다.

한 PEF 관계자는 "PEF들이 다음 펀드레이징(투자금 모집)을 위해 투자에 나서기도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대놓고 이야기 안 한다"며 "투자금을 집행하면 바로 다음 펀드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매물이 많으면 투자를 마치고 신규 펀드를 조성한 후 다시 투자하는 식"이라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앤컴퍼니는 2010년에 설립된 신생 PEF 운용사다. 한상원 대표는 예일대학교, 하버드 경영대학원(MBA)를 졸업한 뒤 모간스탠리 PE 한국대표 및 아시아총괄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을 거쳐 한앤컴퍼니를 통해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

탑엔지니어링, LED 핵심장비 수주

국내 기술력 인정… 수출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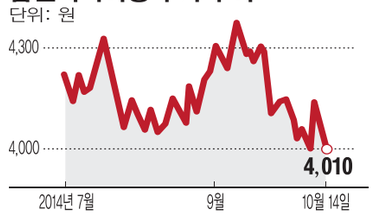
LCD공정장비 전문기업인 탑엔지니어링은 국내 대기업과 제니컴에 LED 핵심장비 중 하나인 MOCVD(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 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제니컴으로부터 받은 수주는 탑엔지니어링이 지난 2012년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 연구개발용 MOCVD 장비를 납품한 이후 양산 공급으로 이룬 첫 성과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국내·외 고객사에 대한 추가 수주 또한 기대된다.

탑엔지니어링은 이번 공급 물량 및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기존 미국의 비코(VEECO)와 독일의 엑시트론(AIXTRON)이 독점하던 시장에서 국내 순수 기술력으로 수주를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탑엔지니어링의 MOCVD 제품은 해당 기판이나 결정 표면에 손상 없이 증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LED 제조기업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탑엔지니어링 주가 추이
단위: 원



MOCVD는 LED 제작공정 필수 장비로 사파이어 기판 위에 유기물을 이용하여 반도체를 성장시킨 후 발광하게 하는 장비다. 무엇보다 LED 공정 전체 장비 투자액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성장가능성 또한 높은 분야다.

탑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수주가 기존 주력장비인 LCD부문 제품과 더불어 LED부문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매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MOCVD 및 LED장비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2014 ITU 전권회의 (10.20~11.07)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도 그 시작은 펜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본다

듣는다, 느낀다, 그리고 쓴다

그 순간 생각은 탄생하고 이야기는 시작된다

지금 여기, 당신을 위해 조금 더 특별해진 S펜이

그리고 갤럭시의 네번째 노트가 있으니까



Samsung
GALAXY **Note** *4*

S펜으로 연속해서 모으고 공유까지 한번에 **[스마트 셀렉트]**

- 아날로그 콘텐츠를 촬영 후 디지털로 변환하여 자유롭게 편집하는 **[포토 노트]**
-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펼쳐 보는 **[멀티 윈도우]**
- 손글씨를 예쁘게 잡아 주고 또렷이 살려내는 펜 **[캘리그래피 펜]**

삼성전자 SAMSUNG